

정책연구자료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8. 11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최이섭

보험연구원

머 리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금융불안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으로 급속하게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내수부진의 지속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증가의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이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적인 시행, 보험업법의 개정안 입법예고,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보험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실물경제, 금융 및 보험시장을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전망하고, 보험산업 관련 제도변화의 분석과 합리적 경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동향분석실 및 연구조정실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8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나 동 민

목 차

I. 경제·금융환경 변화	1
1. 세계 경제	1
2. 국내 경제	17
3. 금융 경제	24
II. 보험제도 변화	32
1. 제도변화의 기본방향	32
2. 제도변화 방향의 주요내용	33
III. 보험산업 현황	42
1. 주요지표 동향	42
2. 생명보험	44
3. 손해보험	63
IV. 보험산업 전망	81
1. 주요지표 전망	81
2. 생명보험	87
3. 손해보험	99
V. 보험산업 주요과제	120
1. 경영의 위기와 기회 요인	120
2. 기회요인을 극대화	122
3.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	123
<부록> 금융위기 발생일지 및 보험산업 주요 전망치 요약	126

표 목 차

<표 I -1> 글로벌 공조	2
<표 I -2> 금융산업의 잠재적 자산가치 평가손실	3
<표 I -3> 세계 경제 주요지표 전망	7
<표 I -4>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11
<표 I -5>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13
<표 I -6> 주요 국가별 주요지표 전망	14
<표 I -7>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15
<표 I -8>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	16
<표 I -9>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성장률	21
<표 I -10> 국내 실물경제 전망표	23
<표 I -11> 대외거래 전망	24
<표 I -12> 원/달러 및 원/엔 환율	26
<표 I -13> 물가 및 금리 전망	29
<표 II -1> 보험모집조직간 권한 비교	36
<표 II -2>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계	38
<표 II -3>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계의 도입관련 로드맵	39
<표 II -4> 보험산업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	41
<표 III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42
<표 III -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43
<표 III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I)	44
<표 III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II)	45
<표 III -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46
<표 III -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48
<표 III -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49
<표 III -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51
<표 III -9>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52
<표 III -10>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54
<표 III -11>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56
<표 III -12>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57
<표 III -13>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58
<표 III -14>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60
<표 III -15>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61
<표 III -16>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62
<표 III -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63

<표 III-1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65
<표 III-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70
<표 III-20>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71
<표 III-21>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72
<표 III-22>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73
<표 III-23> 손해보험	자산운용률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74
<표 III-24>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75
<표 III-25>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76
<표 III-26>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77
<표 III-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79
<표 III-2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80
<표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82
<표 IV-2> 보험침투도	전망	84
<표 IV-3> 1인당	보험료 전망	85
<표 IV-4> 생·손보	구성비 전망	85
<표 IV-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86
<표 IV-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89
<표 IV-7>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90
<표 IV-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95
<표 IV-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97
<표 IV-1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	98
<표 IV-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0
<표 IV-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101
<표 IV-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2
<표 IV-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102
<표 IV-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4
<표 IV-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104
<표 IV-1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6
<표 IV-18>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107
<표 IV-19>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9
<표 IV-20>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110
<표 IV-21>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11
<표 IV-22>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112
<표 IV-23>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113
<표 IV-24>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16
<표 IV-25>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117
<표 IV-26>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118
<표 IV-27>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119

그림 목 차

<그림 I -1> OECD 경기선행지수	4
<그림 I -2>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6
<그림 I -3> 원자재 가격 증가율 전망	8
<그림 I -4>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	8
<그림 I -5>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	9
<그림 I -6> 수출 증가율 전망	10
<그림 I -7> 수입 증가율 전망	10
<그림 I -8> 최근 주가, 원/달러 및 금리 변동	17
<그림 I -9>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의 위기시기별 비교	20
<그림 I -10> 외채, 자금수급 및 대외의존 구조지표의 위기시기별 비교	20
<그림 I -11>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22
<그림 I -12> 2008년 주요국 대미달러 환율 변동 추이	25
<그림 I -13> 국내 주가지수 변동 추이	27
<그림 I -14> 주요국 주가지수 변동 추이	27
<그림 I -15>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28
<그림 I -16> 주요국 물가 변동 추이	28
<그림 I -17> 아시아 주요국 CDS 프리미엄	29
<그림 I -18> 국내 은행 CDS 프리미엄	29
<그림 I -19> 금융상품 자금 유출입	31
<그림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83
<그림 IV-2> 보험침투도 전망	84
<그림 IV-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88
<그림 IV-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90
<그림 IV-5> 생산혼합보험 성장률 추이	93
<그림 IV-6>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94
<그림 IV-7>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96
<그림 IV-8>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98
<그림 IV-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0
<그림 IV-10>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2
<그림 IV-11>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103
<그림 IV-12>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4
<그림 IV-13>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	105
<그림 IV-1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106
<그림 IV-15> 자동차보험 시장규모 및 온라인 점유율 추이	107

<그림 IV-16>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108
<그림 IV-17> 보증보험 종목별 성장률 현황	108
<그림 IV-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9
<그림 IV-19>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110
<그림 IV-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11
<그림 IV-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112
<그림 IV-22> 장기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	114
<그림 IV-23> 장기보험 초회보험료 비중	115
<그림 IV-24>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16
<그림 IV-25>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117
<그림 IV-26>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118
<그림 V-1> 보험회사 경영영역별 기회와 위기 요인	121

I. 경제 · 금융환경 변화

1. 세계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

- 2007년 초 모기지 대출회사의 연쇄부도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실채권 보유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대형투자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확대되어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2008년 중반까지 유가, 곡물가 등의 급등과 맞물려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Lehman Brothers, AIG, Washington Mutual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쇄파산에 이어 구제금융 신청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 자금시장의 신용경색 심화로 확대됨.
 -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Fortis, Wachovia, Glitnir, Dexia 등 유럽 금융기관들의 파산,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¹⁾.
- 금융위기의 영향 및 실물경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은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더불어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유동성공급 및 대출 보증, 금리인하, 예금 보증 확대, 은행의 부실자산 인수, 나아가 은행의 부분적 국유화 조치, 주식 공매도 금지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

1) <부록 1> 참조

하고 있음2).

- 또한 G7 협의 및 행동계획 발표, 미연준(FRB)의 통화스왑 확대, EU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 등 신속하게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표 1-1> 글로벌 공조

일자	공조내용
2008.4	G7 100일내 실시사항 권고
2008.10	G7 Action Plan, 공조체제 구축
“	G20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공동성명
“	EU 공동대응을 위한 긴급수뇌회담
“	FRB 통화스왑 확대, 현재 14개국 중앙은행과 체결.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은행, 캐나다은행은 무제한 조건
“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들은 통화금융 안정화를 거쳐 역내 협력강화와 시장 신뢰제고 방안을 토의

○ 금융위기에 따른 비용은 여러 국가 및 기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IMF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채권, 가계 및 기업부채 채권의 자산가치는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보고된 손실은 7,600억 달러이며, 5,800억 달러는 글로벌 뱅크가 보유함.
- 비은행 금융기관은 최소 1,800억 달러, 보험회사는 1,000억 달러, 공기업의 경우 200억 달러의 자산손실을 기록하였으나 1,1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부록 2> 참조

- 헷지펀드를 포함한 기타 투자자는 600억 달러의 자산손실이 예측되어 금융기관이 보유한 잠재부실 중 55%는 이미 실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1-2> 금융산업의 잠재적 자산가치 평가손실

(단위 : 10억 USD)

	은행	보험사	연금/저축	공기업/정부	기타 (헷지펀드 등)	예측치
서브프라임	35-40	0-5	0-5	--	10-15	50
Alt-A	20-25	0-5	0-5	--	5-10	35
프라임	25-30	0-5	0-5	45-55	0-5	85
상업용 부동산	60-65	5-10	0-5	--	10-20	90
가계대출	30-35	0-5	0-5	--	10-15	45
기업대출	80-85	0-5	0-5	--	25-30	110
레버리지 대출	5-10	0-5	0-5	--	0-5	10
합 계	255-290	5-40	0-35	45-55	60-100	425

자료 :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8.10.

나. 실물경제 둔화와 잠재적 위협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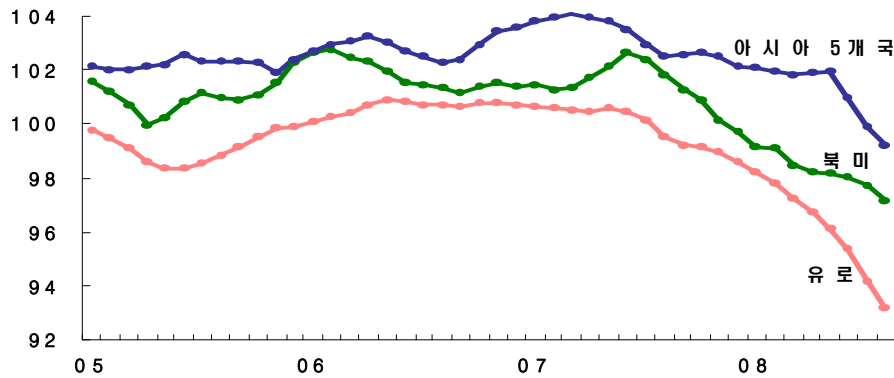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각국의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경기둔화가 관측되고 있고, 2008년으로 접어들수록 가파르게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임.
 -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의 경제성장률도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더욱이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 2008년 10월 현재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파키스탄, 헝가리 등 6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이며, 키예프, 터키, 세르비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예정 중 혹은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상황임.

<그림 1-3> OECD 경기선행지수



주 : 아시아 5개국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의미함.
 자료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으로,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 우선은 미국 주택가격의 불안정성과 추가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추가적 부실 가능성임.
- 또 다른 요인으로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국가 부도국의 증가 가능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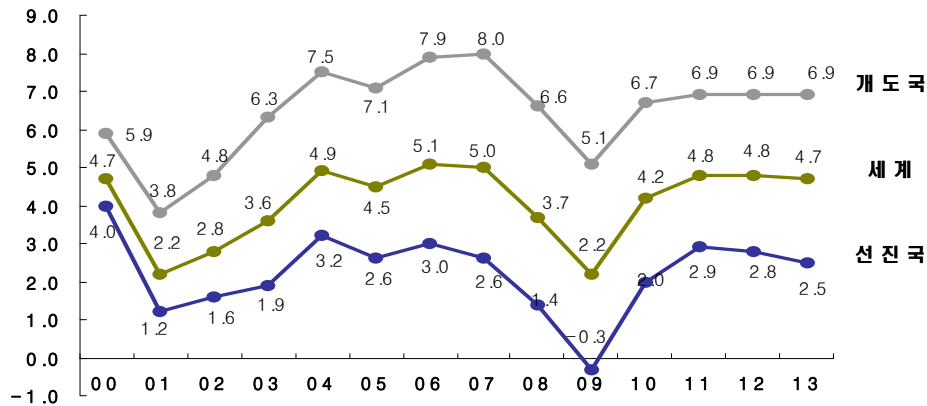
- 이러한 잠재적 위협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의 악순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의 동반침체로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민간금융기관들의 신뢰가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신용경색은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가계, 기업의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 수출시장 축소, 무역금융 악화 → 수출둔화 → 세계경제 침체 → 금융시장 위축 → 신용경색”의 금융과 실물경제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함.
 - 경제권별로는 선진국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지속,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선진국을 수출시장으로 하는 신흥·개도국은 급격한 수출감소, (외국인)투자자금 조달의 축소, 해외소득 감소에 따른 자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경기의 급속한 하강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선진국의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다. 세계경제 전망

- IMF는 세계경제가 2007년 5.0%에서 2008년 3.7%, 2009년 2.2%로 급속히 둔화되고, 2010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³⁾.
 - 2009년에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신흥·개도국은 장기 성장추세 보다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3) IMF의 세계전망은 통상 년 2회로 공표되나 2007년에는 3회, 2008년에는 4회를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10월 발표이후 11월에 수정전망을 다시 발표함. 이는 그만큼 세계경제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4>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6, 2008.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

- 이러한 전망은 미국과 유로지역이 금융위기의 안정화에 성공하고,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위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임.
 - 경기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것은 선진국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축소 및 자본 강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각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유동성 회복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2008년 중반까지 급등세를 보인 원유, 식료품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둔화로 급속하게 하락 중이며, 2009년에는 원유가격은 -8.0%, 식료품 가격은 -7.5%, 비철금속은 -10.1%까지 하락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표 1-3> 세계 경제 주요지표 전망

(단위: %)

	실질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¹⁾			
	2007	2008 ²⁾	2009 ²⁾	2013	2007	2008	2009	2013	2007	2008	2009	2013
전세계	5.0	3.7	2.2	4.7	-	-	-	-	-	-	-	-
선진국	2.6	1.4	-0.3	2.5	2.2 ²⁾	3.6 ²⁾	1.4 ²⁾	2.0	-0.9	-1.0	-0.6	-0.4
개도국	8.0	6.6	5.1	6.9	6.4 ²⁾	9.2 ²⁾	7.1 ²⁾	4.8	4.1	4.1	2.9	2.2
미 국	2.0	1.4	-0.7	2.3	2.9	4.2	1.8	2.1	-5.3	-4.6	-3.3	-2.8
유 로	2.6	1.2	-0.5	2.2	2.1	3.5	1.9	1.9	0.2	-0.5	-0.4	-0.1
일 본	2.1	0.5	-0.2	1.7	-	1.6	0.9	1.5	4.8	4.0	3.7	2.8
중 국	11.9	9.7	8.5	10.0	4.8	6.4	4.3	3.3	11.3	9.5	9.2	9.9

주 : 1)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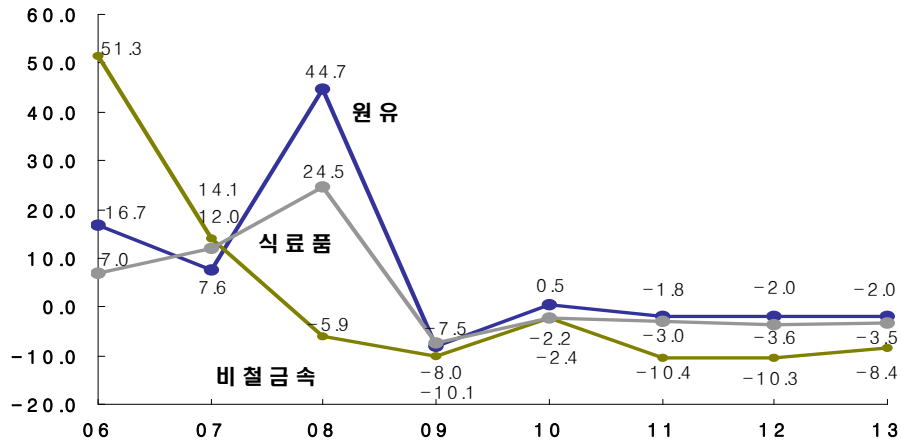
2) 2008년 11월 6일 IMF 발표 수정 전망치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6, 2008.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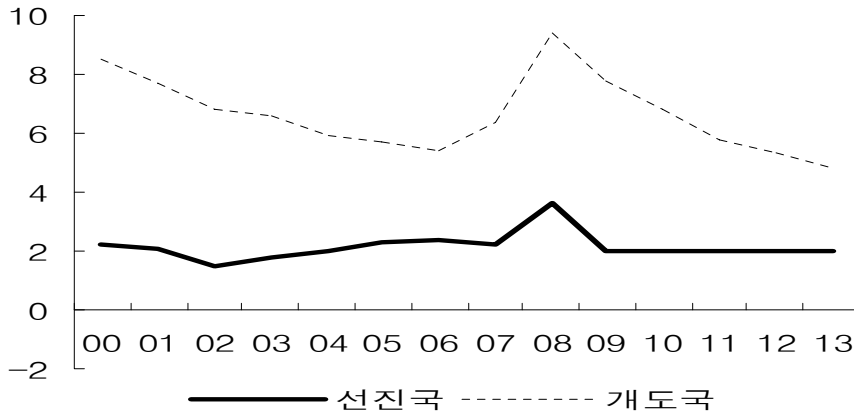
-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선진국 인플레이션은 크게 완화될 것이며, 신흥·개도국의 경우 경기둔화로 물가상승률은 둔화되지만, 이전의 원자재가격 상승이 소비재로 전가되고,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수준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5> 원자재 가격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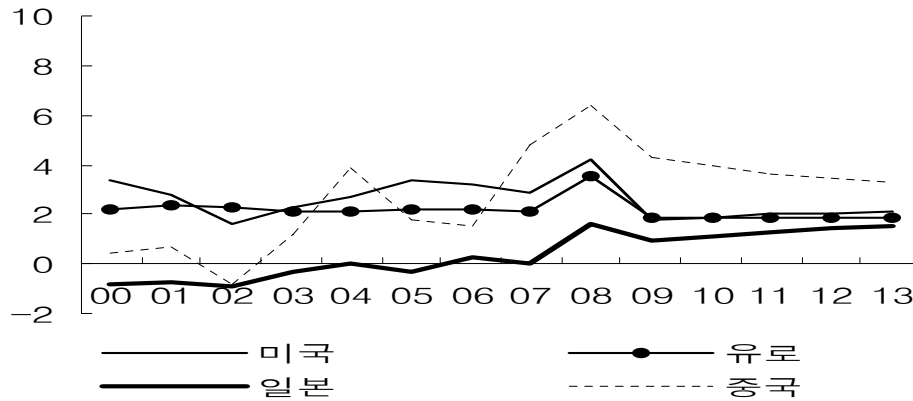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

<그림 1-6>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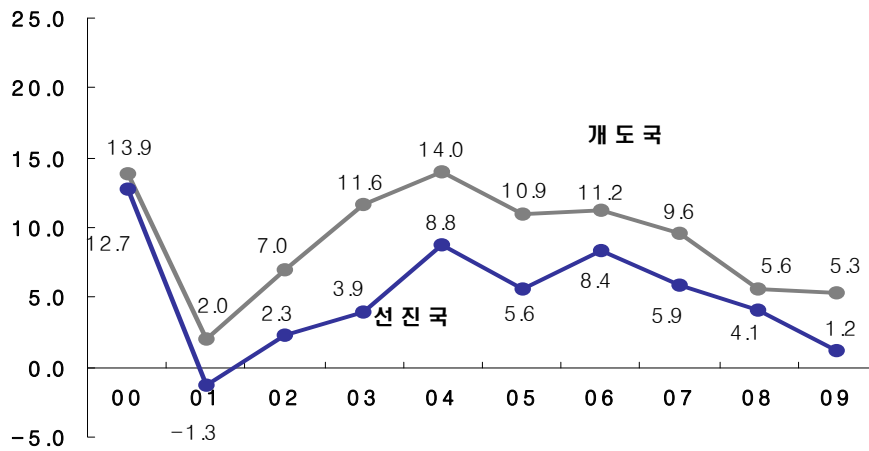
<그림 1-7>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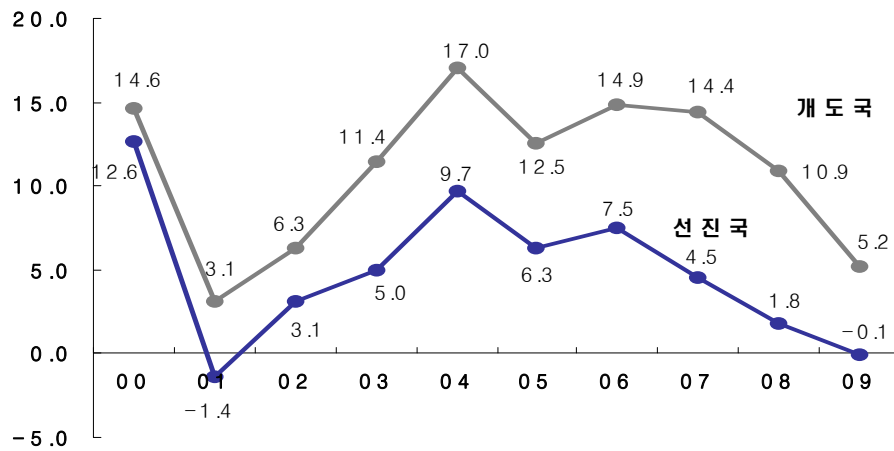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둔화가 지속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수입도 동시에 둔화될 전망이다.
 - 수출은 선진국, 수입은 개도국에서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파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큰 국가일수록 금융위기 영향이 더욱 클 것이며, 이는 글로벌 디레버리징 추세에 따라 신흥국 등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국가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8> 수출 증가율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2008.

<그림 1-9> 수입 증가율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2008.

라. 주요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미국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⁴⁾이 한 분기에만 영향을 주고 그 효력을 다하게 되자, 3/4분기부터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를 비롯하여 주택 및 설비투자 등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등세를 보이던 수출마저 하락함으로써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0.1	4.8	4.8	-0.2	2.0	0.9	2.8	-0.3
민간소비	3.9	2.0	2.0	1.0	2.8	0.9	1.2	-3.1
설비투자	3.4	10.3	8.7	3.4	4.9	2.4	2.5	-1.0
주택투자	-16.2	-11.5	-20.6	-27.0	-17.9	-25.1	-13.3	-19.1
수출	0.6	8.8	23.0	4.4	8.4	5.1	12.3	5.9
수입	7.7	-3.7	3.0	-2.3	2.2	-0.8	-7.3	-1.9
정부지출	0.9	3.9	3.8	0.8	2.1	1.9	3.9	5.8

자료 : 미상무성,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8.10.30(Q3 advance).

- 금융기관의 금융위기 극복은 은행의 국유화, 대출기관의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달성될 수 있겠지만, 기업과 가계는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강화

4) 신용경색과 주택경기 부진지속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美의회는 2월7일 소비 진작을 위한 세금환급 및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1,6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을 의결함.

에 직면하여 신용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세금환급으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도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문의 현금흐름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의 경기부양대책도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비자 신뢰지수와 ISM 제조업지수가 10월 들어 1982년 이래 최저인 38.0과 40이하를 보임에 따라 적어도 6개월 동안 소비자 체감경기, 고용상황, 기업의 영업환경, 산업생산활동 등 모든 부문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여파, 주택시장 경기침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자재가격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2009년 상반기까지 불황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여, 경제성장은 2008년에 1.4%로 둔화되고 2009년에는 -0.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2) 유로지역

- 2/4분기에는 고유가, 유로화 강제 환경에서 수출 둔화, 내수부족, 투자 의욕 상실의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2% 하락시켰다면, 3/4분기에는 신용시장 마비, 글로벌경제 악화로 인한 투자심리 경색, 실업률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성장률을 0.2% 하락시키는 등 본격적인 경기불황 상황을 보여줌.

<표 1-5>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0.7	0.5	0.6	0.4	2.6	0.7	-0.2	-0.2
민간소비	0.0	0.7	0.4	0.2	1.6	-0.1	-0.2	-
고정자본형성	0.9	0.2	0.9	1.1	4.2	1.4	-1.0	-
정부지출	1.0	0.2	0.5	0.3	2.3	0.3	0.5	-
수출	0.5	1.3	1.8	0.3	6.0	1.8	-0.2	-
수입	1.2	0.8	2.2	-0.4	5.4	1.8	-0.5	-

주 : 유로 15개 회원국(EA15) 대상

자료 : Eurostat, 2008.11.14.

Eurostat, EU economic data pocketbook, 2008.9.18.

- 이러한 상황은 금융자산 가치 저하 및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촉발된 디레버리징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신용확보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아울러 유로화의 초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9년 하반기 경기회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IMF는 유럽지역이 2008년에는 1.2% 성장에 그치고, 2009년에는 -0.5%의 감속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1-6> 주요 국가별 주요지표 전망

(단위: 전기대비 %)

	2006	2007	2008	2009	2013
유로 GDP	2.8	2.6	1.2 ¹⁾	-0.5 ¹⁾	2.2
실업률	8.7	7.4	7.6	8.3	-
소비자물가	2.2	2.1	3.5	1.9	1.9
독일 GDP	3.0	2.5	1.7 ¹⁾	-0.8 ¹⁾	1.7
실업률	9.8	8.4	7.4	8.0	-
소비자물가	1.8	2.3	2.9	1.4	1.7
영국 GDP	2.8	3.0	0.8 ¹⁾	-1.3 ¹⁾	3.1
실업률	5.4	5.4	5.4	6.0	-
소비자물가	2.3	2.3	3.8	2.9	2.0
프랑스 GDP	2.2	2.2	0.8 ¹⁾	-0.5 ¹⁾	2.8
실업률	9.2	8.3	7.7	8.3	-
소비자물가	1.9	1.6	3.4	1.6	1.8
이탈리아 GDP	1.8	1.5	-0.2 ¹⁾	-0.6 ¹⁾	1.3
실업률	6.8	6.2	6.7	6.6	-
소비자물가	2.2	2.0	3.4	1.9	2.0
스페인 GDP	3.9	3.7	1.4 ¹⁾	-0.7 ¹⁾	3.3
실업률	8.5	8.3	11.2	14.7	-
소비자물가	3.6	2.8	4.5	2.6	2.4

주 : 1)은 2008년 11월 6일 IMF 발표 수정 전망치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 6, 2008.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8.

3) 일본

- 2007년 3/4분기부터 시작된 정채국면이 2008년 2/4분기에 -0.9%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자, 일본정부는 경기부양⁵⁾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3/4분기

5) 8월 30일 일본정부는 소득세 인하, 연료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정부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11조 5,000억 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함.

에도 -0.1%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불황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표 1-7>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0.9	-0.3	0.6	0.4	2.2	0.6	-0.9	-0.1
민간소비	0.5	0.5	0.2	0.2	1.7	0.6	-0.6	0.3
설비투자	0.0	-2.6	1.8	0.5	2.0	-0.3	-1.4	-1.7
주택투자	-1.3	-3.9	-8.4	-9.8	-9.5	5.1	-3.1	4.0
정부투자	3.2	-2.8	-1.9	0.2	-2.5	1.0	-5.5	0.4
수출	2.8	2.0	2.6	2.6	8.6	3.4	-2.6	0.7
수입	0.6	1.1	-0.5	1.0	1.7	1.2	-3.0	1.9

자료 : 내각부, 2008.11.17(3/4분기 1차 속보치).

- 일본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노출은 타 경제권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되나 세계경제의 둔화와 엔화강세는 일본경제의 대외 거래 부문에 적신호를 줄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가 및 식료품가격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함께 민간수요를 둔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미 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경제에 대한 IMF 전망은 2008년에는 0.5% 성장에 그치고, 2009년 -0.2%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단기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4) 중국

- 3/4분기 경제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주택시장의 경기침체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9.0%를 시현하여 2002년의 9.1%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둔화 양상을 보임.

- 3/4분기에 들어서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시차효과(lagging effect)일 뿐 4/4분기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소매판매와 고정투자 등 내수는 3/4분기에도 여전히 지탱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경기부양대책 실시, 금리인하, 주택시장 제재 해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에도 대외 수요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면서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표 1-8>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11.7	12.6	11.5	11.3	11.9	10.6	10.1	9.0
고정투자	25.3	26.7	26.4	25.8	25.8	25.9	26.8	-
소매판매	14.9	15.8	16.8	19.0	16.8	20.6	22.2	23.2
수출	27.9	27.4	26.2	22.2	25.7	21.4	22.4	23.0
수입	18.2	18.2	20.7	25.4	20.8	28.6	32.4	25.7
산업생산	18.3	18.7	18.7	17.5	18.5	16.4	15.9	13.0
소비자물가	2.7	3.6	6.1	6.6	4.8	8.0	7.8	5.3
생산자물가	2.9	2.7	2.6	4.4	3.1	6.9	8.4	9.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Sep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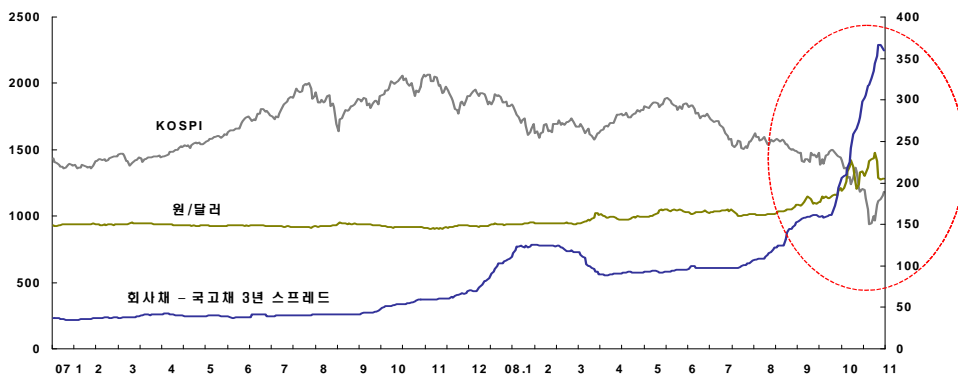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IMF는 2008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9.7%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에 힘입어 8.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2. 국내 경제

가. 금융위기 여파와 구조적 심각성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변동하면서 주식가격의 폭락, 원화환율의 급등, 금리스프레드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음.
- 주식가격은 KOSPI가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2007년말 대비 41.3%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37.5%가 증가였으며, 회사채(3년, AA-)와 국고채(3년)간의 금리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중 103bp에서 366bp로 확대됨.

<그림 1 -10> 최근 주가, 원/달러 및 금리 변동



자료 : 한국은행

- 최근 기준금리의 인하,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국제적 정책공조 논의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 이기는 하였으나,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내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은 2008년 9월 이후에만 3차례(10월9일 0.25%p, 10월27일 0.75%p, 11월7일 0.25%p)에 걸쳐 1.25%p를 인하하고, 미연준(FRB)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에 노력함.

- 또한 정부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출 11조 원과 세제지원 3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정책 강화를 통한 실 물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과 함께 한국경제 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9월중 대량 국고채의 만기도래, 유동외채 증가에 따른 외환보 유고 유동성 부족,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를 급증, 건설업의 부실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나 아직 위기로의 확대로는 보고 있 지 않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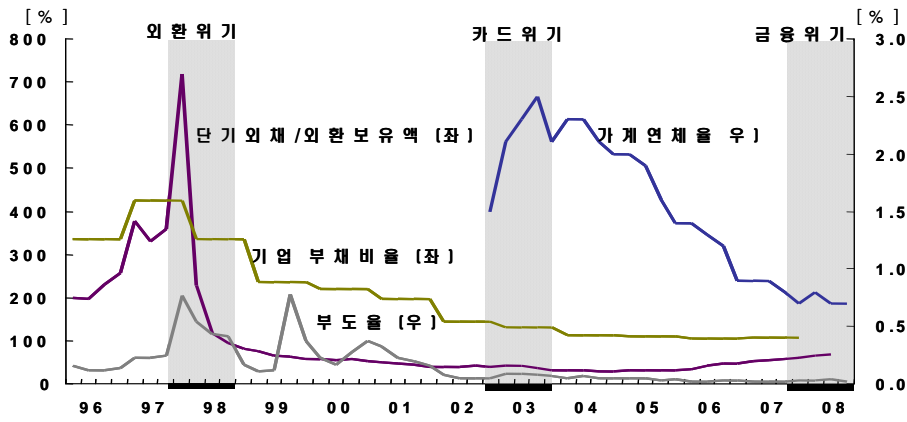
-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국내 외환 및 자금시장에서 달러화뿐만 아니라 원화의 유동성 부족도 심화되면서 해외언론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위기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⁶⁾.

6) 지난 10월에만도 한국 위기 가능성 관련 주요 외신 기사만도 ①10월6일 파이낸셜타임즈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감염가능성 가장 농후”, ②10월8일 다우존스통신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계 은행에 지급불능 조짐 평가”, ③10월10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아시아국가중 경상수지 적자 가장 높음”, ④10월12일 파이낸셜타임즈 “한국 제2외환위기 가능성 제기”, ⑤10월16일 뉴욕타임즈 “한국 बैं킹 아시아·태평양 국가중 가장 취약”, ⑥10월17일 파이낸셜타임즈 “한국 아시아국가 첫 희생자”, ⑦10월23일 월스트리트저널 “IMF가 한국 등 신

- 과거 외환위기, 카드위기 발생 시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주요 위기판단 관련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외채구조의 악화, 자금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외의존도의 심화 등 구조적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우선 국가의 대외적 건전성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업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전산업)과 부도율(금액기준, 전자결제 포함), 가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은행대출금 연체율 등은 외환위기와 카드위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편임.
 - 그러나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48%에서 25%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계속 높아져 2008년 2/4분기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어 외채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외환위기 직전 30%수준이던 총유동성(금융기관유동성, Lf)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최근에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예금은행의 총예금 대비 총대출금 비율이 외환위기 직전 100%대에서 2000년에 70%후반까지 낮아진 이후 2008년 2분기 현재 140%까지 높아져 자금시장의 구조적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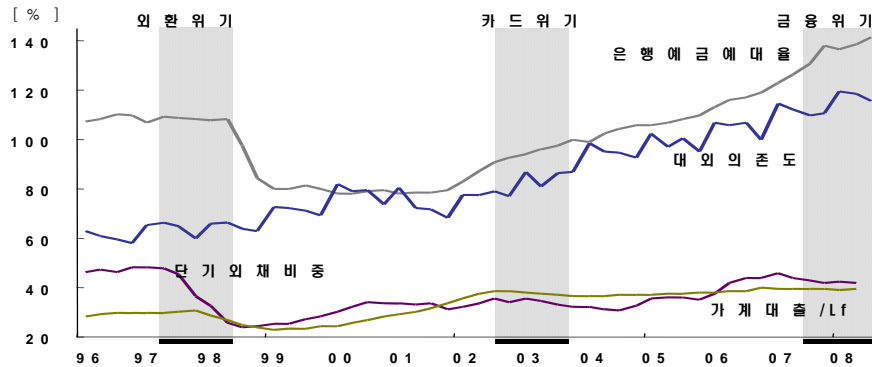
홍국가에 구제금융 지원검토”, ⑧10월24일 뉴욕타임즈 “국경없는 신용위기, 한국은 취약하다” 등 거의 10여건에 달함.

<그림 1-11>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의 위기시기별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12> 외채, 자금수급 및 대외의존 구조지표의 위기시기별 비교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실질가격 기준 GDP 대비 총수출과 총수입 합인 비율로 측정된 대외의존도는 1997년 60%대에서 2008년 중반에는 110%대로 높아져 해외경기 변화에 더욱 민감한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나. 실물경제 동향과 전망

○ 2008년 국내경제는 1/4분기 5.8%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한 이후, 수출의 호조에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임.

- 경제활동별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은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으로 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

<표 1-9>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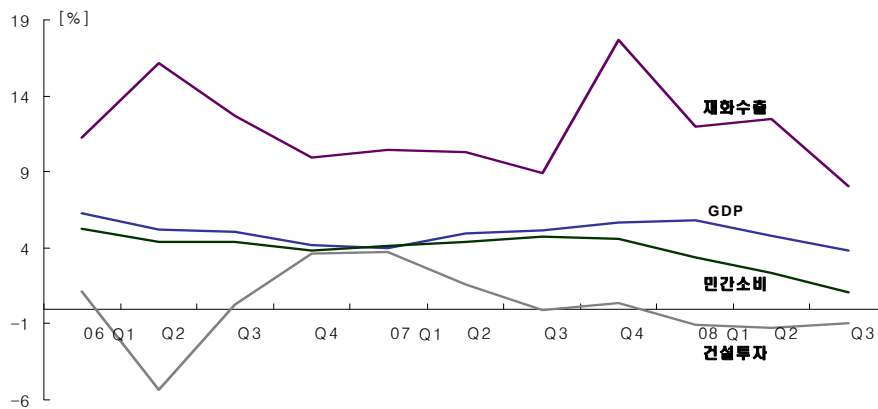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7					2008		
	1/4	2/4	3/4	2/4	연간	1/4	2/4	3/4
국내총생산(GDP)	4.0	4.9	5.1	5.7	5.0	5.8	4.8	3.9
금융보험업	4.8	10.2	15.3	9.9	10.3	6.3	3.4	0.8
제조업	3.8	6.1	6.3	9.5	6.5	9.3	8.5	6.4
전기/가스/수도업	2.3	1.6	5.7	7.0	4.0	8.0	1.6	5.6
건설업	3.9	2.7	0.1	1.4	1.8	0.4	-1.4	-0.3
도소매/음식숙박업	3.7	3.3	3.2	3.8	3.5	3.9	2.4	2.9
민간소비	4.1	4.4	4.8	4.6	4.5	3.4	2.3	1.1
설비투자	10.9	11.0	2.3	6.5	7.6	1.4	0.7	4.9
건설투자	3.7	1.6	-0.1	0.4	1.2	-1.1	-1.2	-0.9
재화수출	10.5	10.3	9.0	17.7	12.0	12.0	12.5	8.1
재화수입	9.6	10.9	5.1	17.6	10.9	11.1	9.2	10.4
내수(재고제외)	5.3	5.1	3.6	4.1	4.5	2.7	1.9	1.7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지출항목별로는 세계경제의 둔화, 유가의 급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금융불안의 가중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면서 내수 전체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가시화되면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실질GDP성장률은 올해의 4.1%보다도 낮은 3.1%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1-13>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민간소비는 유가 안정 등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악화와 소득 둔화 등으로 2008년의 1.7%에서 1.6%로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심화, 신용경색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올해의 2.3%에서

2.1%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SOC 확충, 주택부문의 규제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나, 미분양 주택의 물량 적체, 소비둔화로 인한 비주거용 건설의 회복 지연, 금융시장의 불안 등에 의한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1.4%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표 1 -10> 국내 실물경제 전망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실질GDP	3.1	4.7	4.2	5.1	5.0	4.1	3.1
(경상GDP)	5.9	7.5	4.0	4.6	6.3	7.5	6.0
민간소비	-1.2	-0.3	3.6	4.5	4.5	1.7	1.6
건설투자	7.9	1.1	-0.2	-0.1	1.2	-0.9	1.4
설비투자	-1.2	3.8	5.7	7.8	7.6	2.3	2.1
총수출	15.6	19.6	8.5	11.8	12.1	10.4	6.3
(재화수출)	18.5	21.0	9.7	12.4	12.0	10.2	6.3
총수입	10.1	13.9	7.3	11.3	11.9	8.2	5.9
(재화수입)	11.4	13.8	6.4	11.2	10.9	9.6	6.8

주 :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상품수지는 2008년 78억 달러에서 2009년도에는 89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2008년도 상품수출은 전년에 비해 20.8% 증가한 4,577억 달러, 상품수입은 유가 급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28.7%의 대폭적인 증가로 4,49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7) 6.11 미분양종합대책, 8.21 부동산활성화대책, 9.1 세제개편, 9.19 국민주거안정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2009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수출 증가율은 4.3%로 대폭 둔화되나 상품수입 증가율이 4.1%로 더욱 낮아지면서 상품수지의 흑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2008년에는 서비스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로 인해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2009년에는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9년에는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표 1-11> 대외거래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경상수지	119.5	281.7	149.8	53.9	59.5	-100.1	11.8
상품수지	219.5	375.7	326.8	279.1	294.1	78.2	88.6
상품수출	1,972.9	2,577.1	2,889.7	3,318.4	3,789.8	4,576.9	4,772.5
(%)	(20.7)	(30.6)	(12.1)	(14.8)	(14.2)	(20.8)	(4.3)
상품수입	1,753.4	2,201.4	2,562.9	3,039.4	3,495.7	4,498.6	4,684.0
(%)	(18.0)	(25.6)	(16.4)	(18.6)	(15.0)	(28.7)	(4.1)

주 : 보험연구원 추정 및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3. 금융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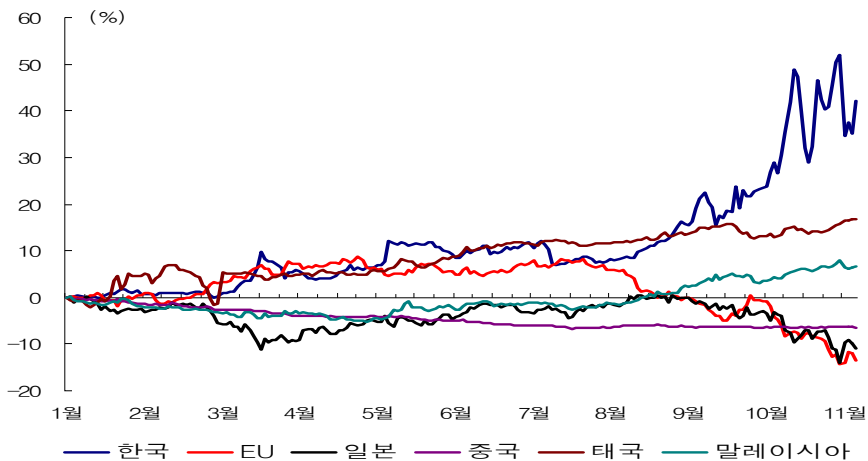
가. 외환시장

-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

는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도에 연평균 1,066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 달러화 뿐만 아니라 유로화, 일본 엔화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최근 이들 통화는 다른 통화에 비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엔 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본 엔화는 초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신흥시장 국가들의 통화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원화는 9월 금융위기설 이후 국내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서도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10월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한미 통화스왑 협정의 체결에 힘입어 외환시장은 잠시나마 진정된 기미를 보였으나, 지속된 외환시장의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11월 20일 현재 1,486원을 기록하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그림 1-14> 2008년 주요국 대미달러 환율 변동 추이



<표 1-12> 원/달러 및 원/엔 환율

(단위 :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원/달러	1,191.9	1,144.7	1,024.3	955.5	929.2	1,065.9	1,106.2
원/엔(100엔)	1,027.9	1,059.3	929.9	821.2	788.9	1,016.7	1,081.9

주 : 연평균 환율수준임.
 자료 : 한국은행, 보험연구원

- 2009년도에는 달러화에 대한 자금경색 현상이 서서히 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8년 10월말 대비 소폭 절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08년 초에 원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2009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대비 3.8% 절하된 1,106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엔화 역시 달러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2009년 중 점진적인 절상세를 보이겠지만, 연평균 원/백엔 환율은 1,082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4% 절하될 것으로 전망됨.

나.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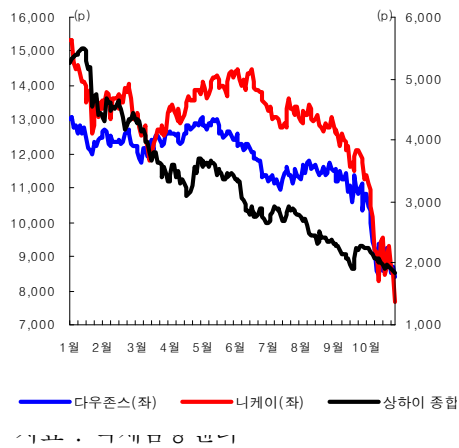
-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주요국 주가지수는 2008년 들어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역시 금융시장 불안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주가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2008년 10월 말 현재 미국의 다우존스지수와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연초 대비 각각 28.5%, 44.0%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무려 67.2%나 폭락하는 등 세계 주요국 증시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침체된 상태임.

<그림 1-15> 국내 주가지수 변동 추이



자료 : 증권거래소(KRX)

<그림 1-16> 주요국 주가지수 변동 추이



자료 : 프래프코뱅크

-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10월 말 현재 금년 초 대비 각각 39.9%, 56.4% 폭락하였으며, 2009년에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증시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증시는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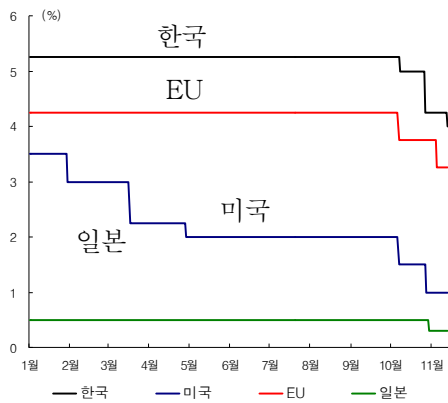
다. 물가 및 금리

- 2008년 상반기 중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요국 물가수준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함.
-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직된 자금시장에 유

동성을 공급하고 침체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미국채(5년) 및 LIBOR 금리의 경우 연평균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대 후반 및 1%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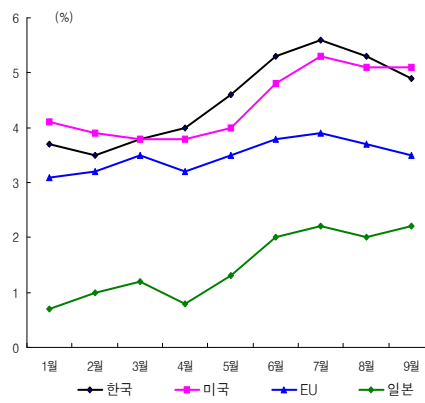
- 2008년도 하반기에 미국, EU,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중국 등 7개 주요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가 큰 역할을 함.

<그림 1-17>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그림 1-18> 주요국 물가변동 추이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 한국은 금년 상반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0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7년보다 2.0%p 이상 급등한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3.0%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13> 물가 및 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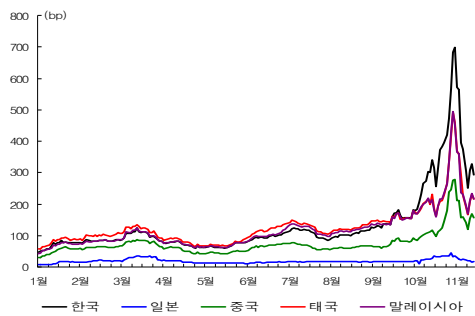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E)	2009(F)
소비자물가지수	3.5	3.6	2.8	2.3	2.5	4.7	3.0
회사채	5.4	4.7	4.7	5.2	5.7	6.9	6.1
국고채(3년)	4.5	4.1	4.3	4.8	5.2	5.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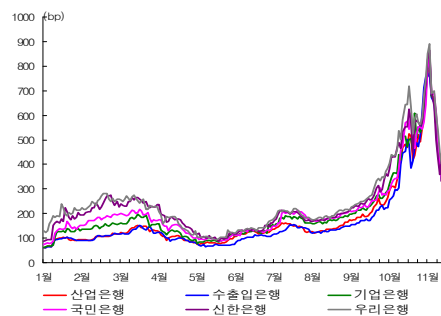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보험연구원

- 또한 금년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5.9%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8월 이후 물가상승세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중앙은행이 10월과 1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p 인하함에 따라 2009년도 국고채(3년) 및 회사채 금리는 금년보다 하락한 4.1%와 6.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19> 아시아 주요국 CDS 프리미엄 <그림 1-20> 국내 은행 CDS 프리미엄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 국가의 부도위험을 대변하는 CDS 프리미엄은 아시아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2008년 10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달러 유동성 부

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가들보다도 높은 CDS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음.

- 외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10월 말 현재 연초 대비 5배 이상 상승한 CDS 프리미엄을 기록 중임.

- 2008년 10월말 한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로 국가부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300bp 이상 떨어졌으나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한국은 동아시아 신흥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CDS 프리미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라.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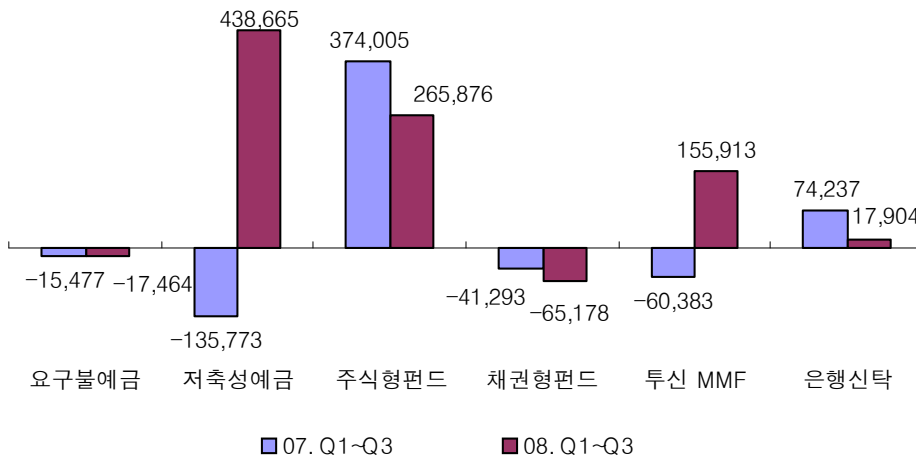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시가 침체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 집중된 반면, 주식형 펀드 및 은행 신탁으로의 자금유입은 감소하였으며, 신용경색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자산을 매각해 자금 확보에 나섬에 따라 채권형 펀드에서는 순자금유출 현상이 발생함.
 - 단, 주식형 펀드 환매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증시 급락과 함께 손실폭이 확대되어 기관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됨.
 - 주식이나 채권 이외의 단기상품에 투자 가능한 MMF는 순자금 유입을 기록함.
- 2009년에도 증시의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주식형 펀드나 은행신탁으로의 자금유입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저축성예금 등에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됨.

- 단,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하락할 경우 시중자금은 저축성예금 이외의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21> 금융상품 자금 유출입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은행

II. 보험제도 변화

1. 제도변화의 기본방향

-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국제적 금융리스크 관리 감독의 강화 경향 등으로 향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도 및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하는 금융규제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등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이지만, 투자자권유 규제의 도입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는 2008년 11월 3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제도의 선진화 도모, 겸영업무의 확대,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국제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리스크감독정책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의 수렴,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의 일관성 확립 등의 흐름 속에서 전사적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방향은 보험산업의 겸
-
- 8)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은 오영수(2007),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험개발원 CR 2007-4 참조
- 9) 보험업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2008),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참조

업화 및 종합화 진전, 판매채널의 다양화,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보험회사는 다양한 겸영업무의 허용,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으로 겸업화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세계적인 추세인 보험산업의 제관분리에 부응하고, 보험판매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판매채널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있음.
-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은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중심 감독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임.
- 또한 민원, 분쟁 등 소비자 관련 금융시장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장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2. 제도변화 방향의 주요내용

가. 보험산업의 겸업화·종합화

-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겸영허용, 지급결제 허용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임.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면서 단지,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차단벽(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추어 개별 보험회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업무가 허용됨.
- 또한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것임.
 -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가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파생상품도 총액한도는 축소되나 유형의 구분 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소유도 총액한도 내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나. 판매채널의 다양화

- 2000년 이후 보험판매제도는 온라인전업사, 방카슈랑스 및 홈쇼핑, 설계

사 교차모집제도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옴.

- 보험산업에 있어서 여러 판매채널의 도입은 제판분리의 추세에 대응하면서, 기존 판매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 전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됨.
- 향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판매채널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신설, 법인대리점제도 및 기타판매채널 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함)로 정의되는데,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 형태임.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도 허용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됨.
 -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이 부여되고,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하도록 함.
 -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중개사제도와 대리점제도를 결합한 성격이 강하나 기능면에서는 중개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보험중개사보다 권한은 더 커지나, 기능 및 역할이 상당 부분 기존 모집조직과 중첩되어 모집조직간 갈등과 혼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표 II-1> 보험모집조직간 권한 비교

구 분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사
요율협상권	○	×	×	×	○
보험료수령권	×	×	○	○	×
계약체결대리권	×	×	△*	△*	×
고지의무수령권	×	×	○	○	×
보험금지급대행	소액에 한정	×	×	×	사전계약으로 소액에 한정
배상책임소재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행위의 목적	계약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계약자
보험사와의 관계	독립	종속	종속	독립	독립

주 : *는 보험업법상에서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자료 : 오영수(2008), 보험제도 선진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한편,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 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 다른 대리점 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안전판매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보증금은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기타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설계사 교육의무, 모집사용인과 보험설계사의 통합 등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임.
 - 즉,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며,

- 보험회사·법인대리점·보험판매 전문회사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품 및 불완전판매 방지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 보험대리점에 소속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와 통합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권의 신BIS협약 적용, 보험권의 Solvency II 추진 등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임¹⁰⁾.
 - 신BIS 규제는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저자기자본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3개축(pillar)의 리스크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신BIS는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제도의 수렴 경향,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의 일관성 확립 경향 속에서 국제적 범금융권 제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EU Solvency II는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신바젤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의 “3 pillar method”를 보험권에 도입하는 것임.
-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RBS: Risk Based Supervision)는 보험회사의 제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리스크 및 이의 통제능력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배분하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감독방식임.

10)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류건식(2008), “보험회사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손해보험」, 2008.12. 대한손해보험협회를 참조

-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량화하여 감독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RBS는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위해 리스크기준 자본금(RBC: Risk Based Capital)을 첫 번째 축으로 구축함.
- 리스크중심의 경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중심 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를 두 번째 축으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공시제도를 세 번째 축으로 설계하고 있음.

<표 II -2>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

신BIS 규제(Pillar 별)	리스크 감독체계 구조	리스크 감독체계 목적
[Pillar I] 최저자기자본 규제	RBC제도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
[Pillar II] 리스크중심 경영관리 유도	RAAS	
[Pillar III] 시장규율 강화	리스크공시	

-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정책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리스크에 의한 손실의 현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조치하는 예방적, 선제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EU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RBC제도가 2009년 4월부터 도입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RAAS와 RBC추가자본의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리스크공시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표 II -3>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의 도입관련 로드맵

년도	제도 도입 및 운영	로드맵 주요 내용
2009	<input type="checkbox"/> RBC제도 도입	표준모형에 의한 RBC비율 산출 및 연착륙 유도 내부모형의 승인제도를 위한 감독 기본요건 및 보험회사 준비사항 제시
2010	<input type="checkbox"/> RBC제도 본격운영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방법 도입 RAAS와 RBC 추가자본 연계
2011	<input type="checkbox"/> 국제회계기준 도입 <input type="checkbox"/> 리스크공시제도 도입	내부모형의 승인제도 시행(금리 및 보험리스크)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RBC기준 일부 수정 자본 및 리스크 규모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정보 공시

라. 소비자 보호의 강화

-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판매채널의 복합화,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조되는 추세임.
 - 보험산업의 겸업화·종합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의 선진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비자 관련 보험시장의 질서 선진화는 보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소비자 소득,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를 전문소비자(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소비자에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보다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판매를 권유할 때에는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시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확인하도록 규정함.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또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초래되는 보험사기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 확인 요청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며,
 -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

<표 II -4> 보험산업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

구 분	주요 내용
<p>종합화·겸업화의 진전</p>	<p><input type="checkbox"/>업무영역의 확대 • 투자자문업·일임업 겸업 허용, 지급결제 허용, 부수업무 허용범위의 네가티브 방식 도입</p> <p><input type="checkbox"/>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p> <p><input type="checkbox"/>보험지주회사 허용</p>
<p>판매채널 다양화</p>	<p><input type="checkbox"/>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 업무범위 확대, 배상책임 도입, 영업보증 개선</p> <p><input type="checkbox"/>법인대리점 제도 정비 • 등록제도와 체제조치 개선, 공시·보고의무 신설</p> <p><input type="checkbox"/>판매채널 자격 및 책임 강화 • 삼진아웃제, 설계사 교육의무, 모집사용인과 보험설계사의 통합</p>
<p>건전성·리스크 중심 감독</p>	<p><input type="checkbox"/>RBC 도입 등 Solvency II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강화</p> <p><input type="checkbox"/>파생상품, 금융기관 차입투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p>
<p>소비자보호 강화</p>	<p><input type="checkbox"/>소비자보호 관련 장치의 강화 • 적합성 원칙 도입, 일반소비자 보호 차등화, 상품 설명 의무 강화</p> <p><input type="checkbox"/>보험사기 조사 강화 • 보험사기의 정의 및 사실확인 요청권한 신설</p>
<p>기타</p>	<p><input type="checkbox"/>상품 확인 및 보험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p> <p><input type="checkbox"/>사업비 후취제도</p> <p><input type="checkbox"/>현금흐름방식의 도입</p>

Ⅲ. 보험산업 현황

1. 주요지표 동향

가. 수입보험료

- FY2007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3.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4~8월에는 5.8% 성장률에 그쳐 그 폭이 크게 둔화됨.
 - 2008년 4~8월 생명보험은 연초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라 성장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0% 성장에 그침.
 - 반면, 2008년 4~8월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에서 두자리수의 고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0% 성장하였음.

<표 III-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8
생명보험	503,925	537,506	614,722	664,549	750,956	302,754
	2.7	6.7	14.4	8.1	13.0	3.0
손해보험	213,782	232,173	257,235	295,829	339,818	150,739
	3.7	8.6	10.8	15.0	14.9	12.0
합 계	717,707	769,695	871,957	960,378	1,090,774	453,493
	3.0	7.2	13.3	10.1	13.6	5.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FY2007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수입의 증가와 투자영업이익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5%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
 - 생명보험 총자산은 변액보험의 성장으로 인한 특별계정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1.8% 성장한 305조 3,997억원을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5.9% 성장한 66조 151억원을 기록하였음.
- 2008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생명보험의 자산가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9.1% 늘어난 378조 7,641억원을 기록함.

<표 III-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7.4~8
생명보험	1,873,615	2,116,098	2,393,619	2,731,313	3,053,997	3,103,601
	14.1	12.9	13.1	14.1	11.8	8.2
손해보험	388,229	434,720	492,774	569,713	660,151	684,040
	9.8	12.0	13.4	15.6	15.9	13.1
합 계	2,261,844	2,261,844	2,886,393	3,301,026	3,714,148	3,787,641
	13.3	12.8	27.6	14.4	12.5	9.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 FY200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75조 956억원으로 명목 GDP성장률 6.3%를 상회하는 13.0%의 성장률을 나타냄.
 - 이는 주로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변액보험의 판매 호조에 의한 것임.
- 그러나 2008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초부터 시작된 금융시장 혼란의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30조 2,754억원을 기록함.
 - 같은 기간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6% 증가했으며 단체보험은 -6.5%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1)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4-8
국내 경제	경상GDP (10억원) ¹⁾	724,675	779,381	810,516	848,045	901,188	459,778
	증 가 율 ²⁾	5.9	7.5	4.0	4.6	6.3	7.8
생명 보험	보험료(억원)	503,925	537,506	614,722	664,549	750,956	302,754
	증 가 율 ²⁾	2.7	6.7	14.4	8.1	13.0	3.0

주 : 1) GDP는 CY 2000 명목가격 기준을 따름.

2)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CY2007 상반기 경상 경제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www.bok.or.kr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II)

(단위 : 억원, %)

구 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2차년도 이후		보험료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3	개인	53,625	80.6	91,438	-9.2	302,098	6.0	447,161	7.6
	단체	10,758	-56.9	8,476	-55.3	37,530	20.1	56,764	-24.5
	전체	64,383	17.8	99,913	-16.5	339,629	7.4	503,925	2.7
FY2004	개인	55,101	2.8	103,031	12.7	322,008	6.6	480,140	7.4
	단체	11,752	9.2	5,293	-37.6	40,321	7.4	57,366	1.1
	전체	66,853	3.8	108,324	8.4	362,329	6.7	537,506	6.7
FY2005	개인	72,092	30.8	119,812	16.3	356,117	10.6	547,521	14.0
	단체	20,677	75.9	7,392	39.7	39,012	-3.2	67,201	17.1
	전체	92,770	38.8	126,704	16.7	395,130	9.1	614,722	14.4
FY2006	개인	67,892	-5.8	131,851	10.0	399,256	12.1	598,999	9.4
	단체	20,340	-1.6	7,408	0.2	37,802	-3.1	65,550	-2.5
	전체	88,233	-4.9	139,259	9.9	437,058	10.6	664,549	8.1
FY2007	개인	91,631	35.0	140,764	6.8	446,663	11.9	679,058	13.4
	단체	15,848	-22.1	8,987	21.3	47,063	24.5	71,898	9.7
	전체	107,478	21.8	149,751	7.5	493,727	13.0	750,956	13.0
2008.4~8	개인	27,255	-27.6	62,723	10.0	196,255	8.1	286,233	3.6
	단체	5,193	3.6	2,343	-8.3	8,986	-11.1	16,522	-6.5
	전체	32,448	-23.9	65,066	9.3	205,241	7.1	302,755	3.0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 40.9%, 생존보험 29.8%, 생사혼합보험 19.8%, 단체보험 9.6%로 나타남.

-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판매 호조와 노

후소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저축성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망보험 및 단체보험 비중은 낮아짐.

-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이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언더라이팅 강화에 의해 질병 및 기타보험 성장이 둔화되면서 비중이 축소됨.
- 2008년 4~8월에는 단체보험 비중만 축소되고 생존, 생사혼합 등 저축성보험과 사망보험의 비중은 증가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의 저성장을 기록했으나 경제환경 악화로 다른 종목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수입보험료 비중은 1.6%p 증가함.

<표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존	사망	생사혼합	계	퇴직보험	퇴직연금	일반단체	계
FY2004	24.4	48.9	16.0	89.3	7.5	-	3.1	10.7
FY2005	25.9	45.3	17.8	89.1	8.6	-	2.3	10.9
FY2006	27.2	44.2	18.7	90.1	7.4	0.6	1.9	9.9
FY2007	29.8	40.9	19.8	90.4	6.6	1.4	1.6	9.6
2008.4~8	31.0	42.5	21.0	94.5	2.8	1.2	1.5	5.5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7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3.4% 증가한 67조 9,058억원을 기록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년대비 4.3% 증가한 30조 6,813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연금 수입보험료의 큰 폭 성장으로 전년대비 24.0% 증가한 22조 3,900억원을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변액유니버설보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19.4% 증가한 14조 8,345억원을 기록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저축성 변액보험의 인기로 인해 급성장세를 나타냄.
 -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과 퇴직연금가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으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9.7%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2008년 4~8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6.5%가 감소하면서 FY2007에 비해 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됨.
- 사망보험은 1%대로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성장률도 각각 4.6%, 6.9%로 둔화함.
 - 단체보험은 전년도 고성장을 시현한 퇴직연금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종목에서 감소세를 기록함.

<표 III-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4~8	
개 인 보 험	생존 보험	120,375	131,368	159,305	180,587	223,900	93,862
		31.7	9.1	21.3	13.4	24.0	4.6
	사망 보험	231,844	262,971	278,492	294,199	306,813	128,674
		8.5	13.4	5.9	5.6	4.3	1.4
	생사 혼합	94,942	85,801	109,725	124,213	148,345	63,697
		-14.0	-9.6	27.9	13.2	19.4	6.9
	447,161	480,140	547,521	598,999	679,058	286,233	
	7.6	7.4	14.0	9.4	13.4	3.6	
단 체 보 험	일반	18,013	16,891	14,108	12,379	11,712	4,540
	단체	-34.2	-6.2	-16.5	-12.3	-5.4	-6.7
	퇴직 보험	38,751	40,474	53,093	49,472	49,606	8,398
		-18.9	4.4	31.2	-6.8	0.3	-7.2
	퇴직 연금	-	-	-	3,700	10,580	3,584
		-	-	-	-	186.0	-4.8
	56,764	57,366	67,201	65,550	71,898	16,522	
	-24.5	1.1	17.1	-2.5	9.7	-6.5	
합계	503,925	537,506	614,722	664,549	750,956	302,755	
	2.7	6.7	14.4	8.1	13.0	3.0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7 회사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모두 증가함.

- 이는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변액보험 수

입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함.

- 상위 3개사의 연간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5.6%p 떨어진 56.7%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감.
-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20.3%를 나타냈으며,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5.4%p 증가한 23.0%를 나타냄.

○ 2008년 4~8월에도 전년동기대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기존의 흐름을 이어감.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54.1%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중소형사, 외국사는 각각 23.4%, 22.5%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고, 특히 외국사의 점유율 증가가 국내중소형사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남.

<표 III-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 도	상위 3사	국내 중소기업사	외국사
FY2002	75.8	13.7	10.5
FY2003	72.0	14.4	13.6
FY2004	68.5	15.0	16.5
FY2005	65.9	15.8	18.3
FY2006	62.3	17.6	20.1
FY2007	56.7	23.0	20.3
2008.4~8	54.1	23.4	22.5

주 : 외국사는 지분인수 기준일로 구분하였음. 2008년 8월말 기준 현재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뉴욕, PCA, SH&C가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계약현황

1) 신계약

- FY2007 신계약액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든 종목에서 증가하여 전체 10.7%의 증가율을 기록, 규모는 총 390조 1,040억원으로 나타남.
 - FY2006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사망보험 신계약액은 FY2007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감.
 - 계속해서 두자리 성장을 시현한 생존보험은 FY2007 8.2% 성장에 그쳤으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생사혼합보험 신계약액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 단체보험 신계약액도 20.0%를 성장하여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 2008년 4~8월 생명보험 신계약액은 생존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7.9% 성장함.
 - 사망보험은 7.1%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생존보험은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생사혼합보험도 한 자리수 성장에 그치는 등 저축성보험의 신계약이 위축됨.
 - 단체보험 신계약은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표 III-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2002	318,493	2,597,024	167,007	190,352	3,272,876
	24.8	-10.5	-25.5	-8.9	-8.8
FY2003	233,475	2,537,848	157,970	176,368	3,105,661
	-26.7	-2.3	-5.4	-7.3	-5.1
FY2004	259,179	2,510,532	227,691	282,139	3,279,541
	11.0	-1.1	44.1	60.0	5.6
FY2005	387,117	2,289,677	309,782	676,231	3,662,808
	49.4	-8.8	36.1	139.7	11.7
FY2006	454,564	2,411,024	286,112	372,306	3,524,006
	17.4	5.3	-7.6	-44.9	-3.8
FY2007	491,677	2,628,103	334,391	446,868	3,901,040
	8.2	9.0	16.9	20.0	10.7
2008.4~8	193,077	1,068,156	143,867	176,098	1,581,198
	-3.7	7.1	5.8	33.9	7.9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보유계약

- FY2007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전년도 감소세를 기록했던 단체보험 보유 계약액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7.6%의 증가율을 기록함.
- 각 종목별 보유계약액 비중은 사망보험 76.3%, 생존보험 12.8%, 생사혼합 보험 5.7%, 단체보험 5.1% 순으로 전년에 비해 단체보험과 생존보험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2008년 4~8월 보유계약액은 모든 종목에서 증가하였으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의 보유계약액 증가율이 FY2007에 비해 소폭 낮아짐.

<표 III-9>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2002	금 액	1,590,804	8,305,323	862,663	578,618	11,337,408
	증가율	3.4	17.5	-11.1	-0.2	11.6
	비 중	14.0	73.3	7.6	5.1	100.0
FY2003	금 액	1,513,500	9,211,881	738,275	548,680	12,012,337
	증가율	-4.9	10.9	-14.4	-5.2	6.0
	비 중	12.6	76.7	6.1	4.6	100.0
FY2004	금 액	1,545,966	10,126,018	738,074	674,298	13,084,355
	증가율	2.1	9.9	-0.03	22.9	8.9
	비 중	11.8	77.4	5.6	5.2	100.0
FY2005	금 액	1,732,266	10,959,999	817,564	865,258	14,375,087
	증가율	12.1	8.2	10.7	28.3	9.9
	비 중	12.1	76.2	5.7	6.0	100.0
FY2006	금 액	1,937,319	11,732,321	896,917	712,073	15,278,631
	증가율	11.8	7.0	9.7	-17.7	6.3
	비 중	12.7	76.8	5.9	4.7	100.0
FY2007	금 액	2,112,082	12,553,758	936,498	841,005	16,443,344
	증가율	9.0	7.0	4.4	18.1	7.6
	비 중	12.8	76.3	5.7	5.1	100.0
2008.4~8	금 액	2,195,747	12,779,525	978,879	829,391	16,783,543
	증가율	9.0	6.3	5.0	15.6	7.0
	비 중	13.1	76.1	5.8	4.9	100.0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다. 수지현황

1) 지급보험금

- FY2007 총 지급보험금은 개인보험 보험금 및 환급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7.7% 증가한 44조 8,766억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 보험금과 환급금은 전년대비 각각 34.0%, 3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한 만기보험금과 생존환급금 및 변액보험 해약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임.
 - 개인보험 만기보험금은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8.8%가 증가하였으며, 개인보험 생존환급금은 60.6%의 증가를 시현함.
 - 단체보험은 환급금이 27.6% 감소하면서 총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6.4%가 감소함.
 - 배당금은 유배당보험 판매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FY2007에는 11.7%가 감소함.
- 2008년 4~8월 중 총 지급보험금은 3.7% 증가한 17조 3,737억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의 보험금, 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2.4%로 소폭 증가에 그침.
 - 단체보험은 환급금이 37.1% 증가하면서 총 지급보험금은 13.6% 증가하였음.

<표 III-10>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FY2002	개인	43,219	-1.0	165,246	-7.6	3,732	-23.1	212,197	-6.6
	단체	26,309	-16.9	55,404	-34.0	270	-59.7	81,983	-29.5
	전체	69,528	-7.7	220,650	-16.0	4,002	-27.6	294,180	-14.4
FY2003	개인	60,170	39.2	190,849	15.5	4,535	21.5	255,554	20.4
	단체	33,257	26.4	28,270	-49.0	313	16.0	61,840	-24.6
	전체	93,427	34.4	219,119	-0.7	4,848	21.1	317,394	7.9
FY2004	개인	52,108	-13.4	210,369	10.2	4,590	1.2	267,067	4.5
	단체	29,536	-11.2	19,277	-31.8	346	10.5	49,159	-20.5
	전체	81,644	-12.6	229,646	4.8	4,936	1.8	316,226	-0.4
FY2005	개인	66,862	28.3	222,809	5.9	4,340	-5.4	294,011	10.1
	단체	34,590	17.1	29,860	39.3	354	2.3	61,804	25.7
	전체	101,452	24.3	249,669	8.7	4,694	-4.9	355,815	12.5
FY2006	개인	35,991	-46.2	249,070	11.8	3,672	-15.4	288,734	-1.8
	단체	33,841	-2.1	28,592	-4.2	273	-22.9	62,707	1.5
	전체	69,832	-31.2	277,663	11.2	3,946	-15.9	351,441	-1.2
FY2007	개인	48,234	34.0	338,562	35.9	3,288	-10.5	390,084	35.1
	단체	34,937	3.2	23,548	-17.6	198	-27.6	58,683	-6.4
	전체	83,171	19.1	362,110	30.4	3,486	-11.7	448,766	27.7
2008. 4~8	개인	16,886	1.0	129,661	2.4	1,228	-9.9	147,776	2.1
	단체	14,654	0.8	11,257	37.1	48.4	-48.4	25,960	13.6
	전체	31,540	0.9	140,919	4.5	1,276	-12.4	173,737	3.7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수치차

- FY2007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의 부진 속에 준비금전입액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8.2% 증가한 2조 1,054억원을 시현함.
 - 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9.7%가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투자영업수지는 증시호황 등 투자여건 개선으로 인해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지는 변액보험 수입수수료의 큰 폭 증가로 전년대비 64.3% 증가하였음.
 - 준비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하면서 보험영업이익 감소를 일부 상쇄함.

- 그러나 2008년 4~8월에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4.3% 감소한 5,782억원을 기록함.
 - 동 기간 중 보험영업이익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수입보험료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37.3%가 감소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 또한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1.9%가 감소함.
 - 그러나 기타수지는 전년동기대비 67.2%가 증가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준비금전입액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표 III-11>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수지차	총수지차	당기순이익
FY2002	120,581	195,920	28,320
FY2003	98,356	171,078	15,874
FY2004	101,395	194,232	21,051
FY2005	71,669	178,319	20,972
FY2006	101,789	223,087	19,475
FY2007	41,015	182,318	21,054
2008.4~8	25,881	88,102	5,782

주 : 1) 보험수지차는 특별계정을 포함함.

2)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신계약·유지·수급비)

3) 총수지차 및 당기순이익은 일반계정임.

4)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라. 자산운용 현황

1) 총자산 규모

○ FY2007 생명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변액보험의 성장으로 인한 특별계정 자산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1.8% 증가한 305조 3,99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4/4분기 중 총자산은 300조원 대를 돌파함.

- 특별계정자산은 전년대비 33.3%가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04년 10월 200조원을 돌파한지 3년 4개월 만임.

- 그러나 2008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2%가 증가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부진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가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FY2007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증시 호황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5.9%를 나타냈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진 2008년 4~8월 운용자산 수익률은 5.6%로 낮아짐.

<표 III-12>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총 자 산	운용자산*	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수익률	
				총 자 산	운용자산
FY2003	1,873,615	1,520,232	118,707	6.6	6.9
FY2004	2,116,098	1,685,303	129,822	6.6	6.9
FY2005	2,393,619	1,860,982	125,203	5.7	6.0
FY2006	2,731,313	2,068,592	130,924	5.6	5.8
FY2007	3,053,997	2,267,161	153,452	5.7	5.9
2008.4-8	3,103,601	2,287,113	70,091	5.4	5.6

주 : * 표시는 일반계정의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2)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7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부동산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대출 비중이 소폭 증가했으며, 변액보험의 판매 호조로 특별계정자산이 크게 증가함.
 - 유가증권 항목 중에서는 채권의 비중이 1.5%p가 감소하였으며 주식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2008년 8월말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FY2007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FY2005 이후 20% 이하로 떨어진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III-13>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4~8	
운용 자산	현·예금	3,180	3,012	4,231	4,925	8,156	7,210
		1.7	1.4	1.8	1.8	2.7	2.3
	유가증권	94,665	111,268	125,190	141,638	151,173	150,647
		50.5	52.6	52.3	51.9	49.5	48.5
	- 채권	57,538	71,984	81,628	94,590	101,090	102,106
		30.7	34.0	34.1	34.6	33.1	32.9
	- 주식	8,893	9,394	12,352	12,868	15,211	13,510
		9.4	4.4	5.2	4.7	5.0	4.4
	- 기타	28,234	29,890	31,210	34,179	34,872	35,031
		10.4	14.1	13.0	12.5	11.4	11.3
	대출	45,125	45,306	47,392	50,542	57,295	60,444
		24.1	21.4	19.8	18.5	18.8	19.5
	부동산	9,052	8,944	9,284	9,755	10,092	10,409
		4.8	4.2	3.9	3.6	3.3	3.4
소계	152,023	168,530	186,098	206,859	226,716	228,711	
	81.1	79.6	77.7	75.7	74.2	73.7	
비운용자산	20,574	24,426	24,805	27,069	26,411	27,212	
	11.0	11.5	10.4	9.9	8.6	8.8	
특별계정	14,764	18,654	28,459	39,203	52,272	54,437	
	7.9	8.8	11.9	14.4	17.1	17.5	
총 자산	187,362	211,610	239,362	273,131	305,400	310,3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하단의 수치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현·예금에는 신탁, 예치금 등을 포함, 기타유가증권에는 수익증권, 출자금, 해외유가증권 등이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마. 경영효율

- FY2007 보험금지급률(일반계정)은 개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0.0%p 증가한 66.6%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 보험금지급률은 단기저축성상품 만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7.7%p 상승한 155.9%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의 지급률도 가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하면서 33.9%를 기록함.
- 실효해약률(일반계정)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0.2%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감.
- FY2007 현재 특별계정을 제외한 총자산에서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자산운용률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89.6%를 기록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감.
- FY2007 생명보험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와 25회차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유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인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대비 1.8%p 증가한 41.5%로 모집조직 효율성 개선 추세가 지속됨.

<표 III-14>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4~8	
보험금지급률	59.1	61.3	59.7	63.6	56.6	66.6	61.2	
실효계약률	14.8	16.1	14.2	11.8	10.6	10.2	5.1	
자산운용률*	87.8	88.1	87.3	88.2	88.4	89.6	89.4	
유지율	13회차	79.3	73.6	79.1	79.3	80.9	81.6	-
	25회차	65.7	62.6	58.4	65.7	67.7	68.7	-
설계사정착률(13)	31.2	31.2	33.7	36.1	39.7	41.5	-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2) 실효계약률 = 효력상실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3) 유지율 = 유지계약액/신계약액

4) *는 일반계정의 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 판매채널

- FY2007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설계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감소하여 두 채널 간 비중이 역전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대비 6.1%p 감소한 42.6%를 나타냈으며 설계사의 비중은 4.3%p 증가한 44.6%를 기록함.
 - 설계사의 비중은 주로 대형사에서 증가했으며 상품별로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에서 설계사 비중이 증가함.
 - 보험대리점의 비중은 9.6%로 전년대비 1.0%p가 증가하면서 FY2005 수준으로 비중을 회복함.

<표 III-15>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4~8
회사직급	12.6	7.4	4.7	2.4	3.1	2.8
설 계 사	40.0	37.3	39.1	40.3	44.6	38.8
대 리 점	7.4	8.2	9.6	8.6	9.6	9.7
방카슈랑스	39.7	46.7	46.6	48.7	42.6	48.6
기타	0.3	0.4	0.0	0.0	0.0	0.1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2008년 4~8월에는 설계사의 비중이 하락하고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두 채널 간 비중이 또 다시 역전됨.
 - FY2007 설계사 비중의 확대를 이끌었던 대형사의 설계사 비중이 다시 FY2006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설계사 비중도 낮아짐.
 - 방카슈랑스 비중은 설계사와는 반대로 전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48.6%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대리점은 전년과 같은 9.7%의 비중을 유지함.
- FY2007 생명보험의 모집조직 규모는 회사직급, 설계사, 대리점 모두 증가함.
 - 설계사의 경우 남성 설계사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34.9%에 달해 여자 설계사의 증가율 3.1%를 압도하였으며, 집단별로는 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의 설계사 수가 대형 3사에 비해 크게 둔화됨.
- 2008년 8월말은 회사직급이 감소하고 설계사와 대리점 수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FY2007에 비해 하락함.

<표 III-16>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단위 : 명, 개,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4~8
회사직급	26,726	26,172	25,412	26,033	26,868	29,111	28,106
	-6.5	-2.1	-2.9	2.4	3.2	8.3	-3.5
설 계 사	151,064	143,498	136,947	123,702	131,850	144,324	151,097
	-11.9	-5.0	-4.6	-9.7	6.6	9.5	4.7
대 리 점	7,267	7,211	6,672	10,290	9,760	11,124	11,415
	3.8	-0.8	-7.5	54.2	-5.2	14.0	2.6

주 : 하단은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 FY200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14.9% 성장한 33조 9,818 억원을 시현함.
-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특종 및 해상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화재보험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6%의 저성장세를 보임.

<표 III-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4~8
국내 경제	GDP(10억원) ¹⁾	724,675	779,381	810,516	848,045	901,189	459,778
	증 가 율	5.9	7.5	4.0	4.6	6.3	7.8
손보 산업	보 험 료 ²⁾	213,782	232,173	257,235	295,829	339,818	150,739
	증 가 율	3.7	8.6	10.8	15.0	14.9	12.0

주 : 1) CY 기준(2000년 기준 경상가격)이며, 2008.4 ~ 8은 2/4분기 누적수치임.
 2) FY1999부터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임.
 3) 부수사업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08년 4~8월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효과 소진 및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개

인연금 및 퇴직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 시장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2.0% 성장한 15조 739억원을 기록함.

- 2008년 4~8월 개인연금 및 퇴직부문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7.0% 상승한 8조 2,222억원을 기록함.
- 반면, FY2008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성장률은 6.0%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1.3%로 크게 감소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증 및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9% 상승한 2조 2,335억원을 기록함.

1) 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7 손해보험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4.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포함), 자동차보험 31.8%, 일반손해보험 14.1%의 비중을 차지함.

- 이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성장에 힘입어 점유비가 전년동기대비 2.5%p 상승한 54.1%를 기록한 반면,
-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 확대 및 보험료 성장 부진 등으로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1.7%p가 감소하였음.

<표 III-1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2008. 4 ~ 8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화 재	3,075	-1.8	0.9	1,125	-7.2	0.7
해 상	6,518	3.1	1.9	3,531	16.1	2.3
자 동 차	108,095	12.0	31.8	46,183	4.1	30.6
보 증	9,940	-13.0	2.9	4,796	17.9	3.2
특 중*	28,371	9.9	8.4	12,884	10.7	8.6
장 기	163,436	19.5	48.1	75,607	16.1	50.2
개인연금	9,995	25.3	2.9	4,956	28.7	3.3
퇴직보험	8,258	26.2	2.4	766	-32.7	0.5
퇴직연금	2,133	61.0	0.6	893	425.3	0.6
합 계	339,818	14.9	100.0	150,739	12.0	100.0

주 : 1) *는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 권원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합계임.

2) 부수사업이 제외된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자동차보험

- FY2007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0조 8,095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세 둔화 및 직관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급차량 증가,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효과에 기인한 것임.
- 반면, 2008년 4~8월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채널의 성장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운행거리 제한으로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1%의 성장에 그침.

나) 장기손해보험

- FY2007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상해 및 저축성 부문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19.5% 성장한 16조 3,436억원을 기록함.
 - 부문별 성장률에서는 통합형보험이 전년대비 50.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상해보험 24.8%, 저축성보험이 21.9%로 전체 성장을 견인함.
 - 그 외, 질병보험은 전년대비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재물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각각 3.8%, 2.9%의 성장에 그침.
- 그러나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원수보험료 성장보다 초회성장이 현저히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년간 급성장세를 보이던 저축성보험과 통합형보험이 손해를 상승등으로 판매활동이 위축되어 성장세가 둔화된 것에 기인함.
- 2008년 4~8월에도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한 7조 5,607억원을 시현함.
 - FY2007과 마찬가지로 질병 및 상해, 통합형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통합형보험의 고성장세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임.
- FY2007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9,995억원으로 2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9%를 나타냄.
 - 2008년 4~8월 개인연금보험은 4,9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세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 FY2007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258억원으로 2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2%p 높아진 2.4%를 나타냄.
 - 2008년 4~8월 퇴직보험은 7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함.
- FY2007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1.0% 상승한 2,133억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은 0.6% 정도에 불과하나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4~8월 퇴직연금은 일부 대형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보험 및 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25.3%라는 대폭적인 상승으로 893억원을 시현함.

다) 보증보험

- FY2007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9,9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2008년 4~8월의 실적에서는 4,79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7.9%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7 보증보험은 이행보증 등의 전통적 보증보험영역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8.0% 상승한 7,857억원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담보대출인정비율(LTV) 관리 강화와 모기지신용보험(MCI) 등 신용보험영역의 원수보험료는 2,0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3%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임.
 - 2008년 4~8월의 경우에는 정부당국의 규제완화로 인한 주택금융시장 회복을 기대, 보증사의 해외진출 및 ABS보증보험 판매 등 사업확대

의지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음.

라) 일반손해보험

- FY2007 화재보험은 보험요율 인하 및 건설·투자부문의 성장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3,075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4~8월의 경우에도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1,125억원을 시현함.
- FY2007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6,518억원으로 소폭의 성장세를 나타냄.
 - 선박보험을 비롯한 적하보험은 전년대비 각각 10.2%, 8.3%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운송 및 항공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8년 4~8월의 경우, 조선건조량 사상최대 기록 및 고가선박 증가 추세로 인해 선박보험은 건조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적하보험의 성장세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함.
- FY2007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9.0% 성장한 2조 7,245억원을 시현하였음.
 - 종목별로는 상해보험이 단체상해보험의 실적 호조로 전년대비 19.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성장세 부진을 조립보험의 성장세 확대로 극복한 기술보험은 전년대비 5.1%의 성장률을 보임.
 - 2008년 4~8월 특종보험의 성장률은 상해보험의 고성장 기조와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관심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보험도 전년동기 대비 2.7%로 소폭 성장에 그침.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7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음.
 - 상위 4개사 및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70.1%와 3.0%의 비중을 기록한 반면, 외국사의 경우 최근 온라인단종사가 외국사와 인수합병 되면서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음.
 - 2008년 8월말 현재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8%p 감소한 68.9%를 기록하였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시장 양극화 현상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전업사의 2008년 4~8월 시장점유율은 3.2%를 기록하면서 FY2003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반등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3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전년동기대비 비중이 2.2%p 상승한 3.7%를 기록함.

<표 III-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도	상위 4사	중소형사	일반사계	전업사	외국사
FY2003	70.6	24.6	94.6	4.7	0.7
FY2004	71.1	23.1	94.8	4.0	1.2
FY2005	71.3	23.5	94.8	4.0	1.2
FY2006	71.0	23.2	94.6	4.0	1.4
FY2007	70.1	25.3	95.9	3.0	3.1
2008. 4~8	68.9	25.5	95.2	3.2	3.7

주 : 일반사계에는 교보약사, 더케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중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교보약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 등 7개사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수지상황

1) 수지차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성과에 있어서는 보험영업이익이 -2,1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 흑자로 인해 총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 459억원 늘어난 2조 4,47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FY2007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성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보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은 2,1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투자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주식시장 상승 등 자산운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조 6,641억원을 실현하였음.

-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서는 국내 11개사가 1조 6,448억원

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보증보험사의 영업이익 규모도 전년대비 32.7% 상승한 7,287억원을 기록함.

<표 III-20>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FY2001	-5,967	-6,920	-13,044	15,396	1,099	17,128	9,429	-5,819	4,084
FY2002	-4,090	3,859	210	11,127	-2,828	8,860	7,038	1,030	9,057
FY2003	-8,233	2,484	-5,953	14,268	-66	14,951	6,036	2,417	8,998
FY2004	-7,519	3,575	-3,414	17,136	1,558	19,451	9,616	5,134	16,044
FY2005	-10,561	5,410	-4,908	17,829	2,049	20,841	7,268	7,459	15,932
FY2006	-12,406	3,932	-8,339	19,657	1,561	22,357	7,251	5,493	14,019
FY2007	-5,902	4,499	-2,163	22,350	2,787	26,641	16,448	7,287	24,478
2008 4-8	-285	1,245	634	10,373	580	11,559	10,087	1,825	12,193

주 : 1)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반영한 수치이며, 전사 실적에는 재보 및 외국사 실적이 포함되었음.

2) FY2006부터 더케이와 에르고다움다이렉트 보험의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국내11개사는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 그린, 흥국쌍용, 제일, 삼성, 현대, LIG, 동부, 교보악사 실적이 포함되었음.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2008. 12.

○ 2008년 4~8월의 보험영업이익은 FY2003 이후 지속적인 적자세를 벗어나 634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투자영업이익이 1조 1,559억원을 시현함에 따라 총영업이익은 1조 2,193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 한편, 보증보험회사의 2008년 4~8월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모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350억원이 감소한 1,825억원을 시현함.

2) 당기순이익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6,694억원으로 전년대비 56.4%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증가율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은 24조 6,297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여 원수보험료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 FY2007 사업비는 7조 3,228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 -21>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4~8
발생손해액	155,539	166,068	185,518	214,374	246,297	104,216
	15.5	6.8	11.7	15.6	14.9	10.7
사 업 비	47,203	47,884	53,120	62,456	73,228	32,626
	0.4	1.4	10.9	17.6	17.2	18.2
당기순이익	5,635	11,394	11,873	10,673	16,694	8,776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반면, 2008년 4~8월의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손익구조 개선 및 투자영업이익 증대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193억원 늘어난 8,776억원의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다. 자산운용 현황

1) 총자산 규모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66조 151억원으로 전년대비 15.9%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68조 억원을 기록함.
- 지난 2년간 10%를 훨씬 상회하는 지속적인 자산 증가율은 장기손해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준비금 적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III-22>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8
총자산	388,229	434,720	492,774	569,713	660,151	684,040
	9.8	12.0	13.4	15.6	15.9	13.1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률은 84.2%로 전년대비 0.1%p 가 감소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83.4%를 나타내었음.
- FY2007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대비 0.7%p 상승한 7.5%를 기록한 반면,
- 2008년 4~8월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7.2%를 보였고 총자산수익률도 5.8%로 0.6%p 하락함.
- FY2007 총자산운용이익률은 4.9%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2008년 4~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한 4.7%를 기록함.

- FY2007 운용자산이익률은 5.5%로 전년대비 0.2%p 증가한 반면, 2008년 4~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5.2%를 기록함.

<표 III-23> 손해보험 자산운용률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4-8	
자산운용률 ¹⁾	86.4	86.1	85.1	84.3	84.2	83.4	
수익률	총자산	6.4	6.3	5.9	5.5	6.1	5.8
	운용자산	7.6	7.4	7.0	6.8	7.5	7.2
자산운용 ²⁾ 이익률	총자산	4.3	5.1	5.0	4.7	4.9	4.7
	운용자산	5.0	5.9	5.6	5.3	5.5	5.2

주 : 1) 자산운용률은 일반계정 실적임.

2) 자산운용이익률=2×투자손익÷(연초자산+당월말자산-투자손익)×12/m
(단, 투자손익=투자수익-투자비용)이며,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및 미상각신계약비는 제외되었음.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5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FY2007 부동산의 자산운용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5.9%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총자산 대비 구성비는 6.1%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함.

<표 III-24>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8
현·예금 등	18,434 4.7	18,437 4.2	18,801 3.8	27,474 4.8	38,720 5.9	40,164 6.1
유가증권	205,462 52.9	231,938 53.4	264,695 53.7	299,148 52.5	341,839 51.8	343,484 52.1
- 주 식 ¹⁾	29,044 7.5	28,866 6.6	39,206 8.0	38,379 6.7	46,604 7.1	44,452 6.5
- 채 권 ²⁾	124,753 32.1	149,141 34.3	182,172 37.0	201,065 35.3	220,340 33.4	227,104 33.2
- 수익증권	21,124 5.4	22,145 5.1	16,736 3.4	23,716 4.2	33,668 5.1	32,277 4.7
- 기 타 ³⁾	30,721 7.9	31,786 7.3	26,581 5.4	35,989 6.3	41,227 6.2	39,651 5.8
대출채권	67,888 17.5	76,673 17.6	84,883 17.2	99,518 17.5	114,672 17.4	126,173 19.1
부 동 산	32,489 8.4	33,760 7.8	35,346 7.2	36,089 6.3	39,221 5.9	40,076 6.1
운용 자산	324,273 83.5	360,809 83.0	403,725 81.9	462,229 81.1	534,452 81.0	549,897 83.4
비운용자산	51,176 13.2	58,276 13.4	70,948 14.4	85,967 15.1	100,388 15.2	109,188 16.6
특별계정	12,780 3.3	15,635 3.6	18,101 3.7	21,517 3.8	25,312 3.8	24,955 3.6
총 자 산	388,229 100.0	434,720 100.0	492,774 100.0	569,713 100.0	660,151 100.0	684,040 100.0

주 : 1)주식=주식+출자금,

2)채권=국공채+특수채+회사채

3)기타=해외유가증권+신종유가증권+기타유가증권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대비 0.1%p 축소된 17.4%를 기록한 반

면, 현·예금의 비중은 전년대비 1.1%p 상승한 5.9%를 기록함.

-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3.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그 비중이 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라. 경영효율

- FY2007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3.1%p 감소한 99.2%를 기록하였음.
 - 2008년 4~8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98.0%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비율의 소폭 상승에도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1.4%p 감소함에 따라 합산비율이 하락하게 된 것임.

<표 III-25>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8
경과손해율	77.6	77.7	77.9	78.6	75.7	74.7
사업비율	24.3	23.1	23.2	23.8	23.5	23.4
합산비율	101.9	100.8	101.1	102.3	99.2	98.0

주 :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FY2007에는 화재, 해상, 특종 중심의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악화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관리로 손해율이 하락세를 보이

며, 전년대비 3.2%p 감소한 80.7%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7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현실화 및 고급차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상승, 고유가로 인한 차량 이용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손해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보증보험의 손해율에 있어서도 전년대비 3.9%p 감소한 19.5%를 기록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화재, 해상, 특종에서 5%p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26>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8
화재보험	61.7	56.4	40.9	39.6	44.2	40.8
해상보험	57.7	49.5	52.0	52.1	57.7	57.7
자동차보험	76.7	72.7	76.6	79.0	73.0	68.7
보증보험	44.1	25.3	2.9	23.4	19.5	37.4
특종보험	57.8	52.0	51.6	55.3	60.4	59.7
해외원보험	47.5	41.0	52.4	44.7	34.6	40.9
장기보험	82.4	87.9	86.4	83.9	80.7	80.3
개인연금	121.8	123.8	125.9	125.4	121.7	115.7
전 체	77.6	77.7	77.9	78.6	75.7	74.7
보증보험제외	79.2	79.7	80.5	80.4	77.3	75.7

주 :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를 거듭해 왔으나, FY2007부터는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8월 현재 손해율은 74.7%로 전년

동기대비 1.4%p 감소하였음.

- 최근 손해율이 개선된 주된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및 언더라이팅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하향 안정화 추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손해율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침.

마. 판매채널

- FY2007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0.8%p 감소한 11.9%를 기록하였으며, 방카슈랑스 및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0.6%p, 1.4%p 확대된 5.4%, 47.0%를 기록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1.3%p 감소한 34.3%로 나타나 신채널 성장에 따른 전통채널 비중의 상대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4~8월 온라인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직급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12.8%를 기록한 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을 통해 거수된 보험료 비중은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2008년 4~8월간 점유율이 5.5%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의 경우 2008년 4~8월간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1.4%p 감소한 34.3%, 대리점은 0.1%p 감소한 46.2%의 비중을 차지함.

<표 III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4~8
회사직급	19,323	18,559	30,336	36,508	39,230	19,035
	11.7	11.2	12.2	12.7	11.9	12.8
설 계 사	74,465	80,439	89,616	102,379	113,090	51,164
	35.7	35.5	35.9	35.6	34.3	34.3
대 리 점	105,607	112,552	117,211	131,298	154,833	68,833
	50.6	49.7	47.0	45.6	47.0	46.2
중 개 사	1,791	2,123	2,677	2,470	2,759	1,064
	0.8	0.9	1.1	0.9	0.8	0.7
방카슈랑스	813	4,538	8,370	13,907	17,724	8,225
	0.4	2.0	3.4	4.8	5.4	5.5
공동인수	1,727	1,468	1,318	1,398	1,790	819
	0.8	0.6	0.5	0.5	0.5	0.5

주 : 1) 각 하단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손해보험회사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리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종업원 수가 전년대비 6.0% 늘어나면서 생산성은 7.5% 감소하였으며, 대리점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 및 정예화 추세로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설계사의 월평균 모집액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성은 전년대비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4~8월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임직원의 생산성 모두가 크게 향상되었음.

<표 III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008. 4~8
임 직 원	91.1	84.3	117.5	141.2	130.6	68.5
	-14.1	-7.5	39.4	20.2	-7.5	15.5
보험설계사	123.7	130.7	124.3	139.5	134.7	69.6
	-9.8	5.6	-4.9	12.2	-3.4	8.8
대 리 점	219.0	244.9	256.8	296.6	305.5	161.1
	8.3	11.8	4.9	15.5	3.0	16.0

- 주 : 1) 각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임직원 1인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 수
 4) 설계사 1인당 원수보험료 = 설계사 원수보험료/설계사 수
 5) 대리점 1개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 수

IV. 보험산업 전망

1. 주요지표 전망

가. 수입보험료

- FY2009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성장세 일부 회복과 손해보험의 성장세 유지로 FY2008(3.8%)에 비해 다소 개선된 5.8%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투자형 보험상품의 성격을 지닌 변액보험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금융위기에서 전이된 실물경제의 불안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의 신계약이 대폭 감소하였음.
 - FY2008 생명보험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변액보험의 신계약 감소와 사망보험의 저성장으로 전년대비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FY2009년 생명보험은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FY2008에 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의 상승 전환 등으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의 경우 건강 보장 수요의 증대로 장기보험은 10%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자동차보험은 요율인하 압력과 가격경쟁 격화로 인한 저성장이 예상되므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FY2008 손해보험은 효율인하 및 가격경쟁 격화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저성장세로 전환되지만,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증가와 보증 및 특종 중심의 일반손해보험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년대비 14.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FY2009 손해보험은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 보험의 저성장요인이 심화될 것이나,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로 인해 FY2008 대비 10.3%의 성장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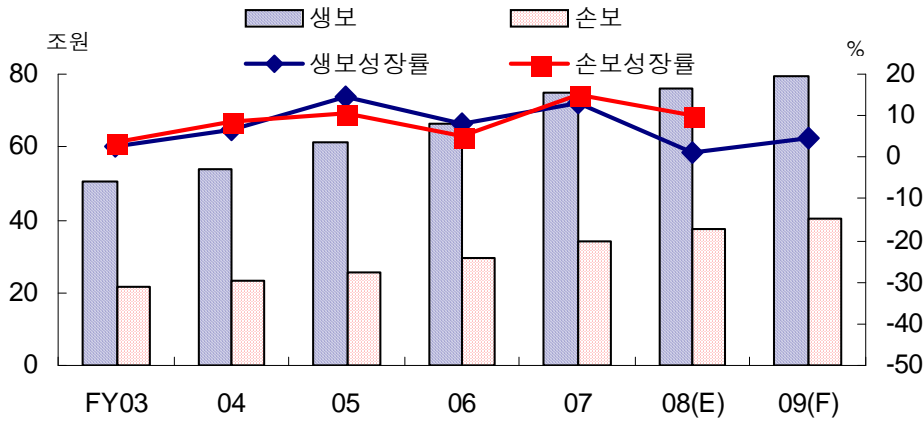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50.4 (2.7)	53.8 (6.7)	61.5 (14.4)	66.5 (8.1)	75.1 (13.0)	75.9 (1.0)	79.5 (4.8)
손해보험	21.4 (3.7)	23.2 (8.6)	25.7 (10.8)	29.6 (15.0)	34.0 (14.9)	37.4 (10.2)	40.4 (7.9)
전 체	71.8 (3.0)	77.0 (7.2)	87.2 (13.3)	96.0 (10.1)	109.1 (13.6)	113.3 (3.8)	119.9 (5.8)

주 : ()안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이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FY2008년 이후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투자영업이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영업이익도 악화될 전망이다.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으로 보험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지만 투자영업이익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나. 보험침투도

○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¹¹⁾는 보험산업의 성장률 둔화로 보험료 상승이 경상GDP¹²⁾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Y2008 부터 11.7%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08과 FY2009에 7.8%로 하락하며, 손해보험은 양 년도 모두 3.9%로 FY200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11) 보험침투도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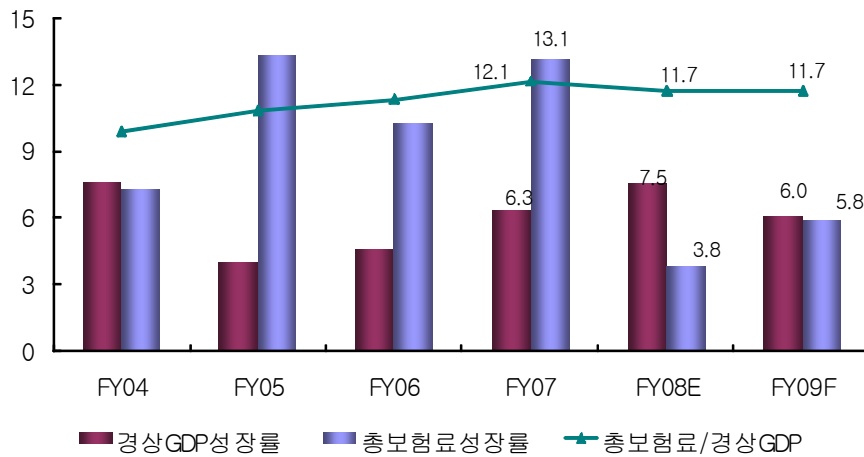
12) 2008년 이후의 GDP는 잠정치 또는 전망치임.

<표 IV-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7.0	6.9	7.6	7.8	8.3	7.8	7.8
손해보험	2.9	3.0	3.2	3.5	3.8	3.9	3.9
전 체	9.9	9.9	10.8	11.3	12.1	11.7	11.7

<그림 IV-2> 보험침투도 전망



다. 1인당 보험료

○ FY2009의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46만원으로 FY2008에 비해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생명보험료는 4.5%, 손해보험료는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FY2008의 1인당 보험료는 233만원으로 FY07보다 4.2% 증가할 것이

며, 생명보험은 156만원, 손해보험은 7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IV-3>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1,053	1,118	1,273	1,376	1,550	1,561	1,632
손해보험	447	483	533	613	701	769	828
전 체	1,500	1,602	1,806	1,980	2,231	2,330	2,460

주 :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로 2006년 11월 자료를 사용함

라. 생·손보 구성비

- 전체 보험산업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8년부터 상대적 인 저성장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Y2009에도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다.
 - FY2009 생·손보 구성비는 66.3% : 33.7%로 FY2008에 비해 생명보험의 비중이 0.7%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V-4> 생·손보 구성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70.2	69.8	70.5	69.5	68.9	67.0	66.3
손해보험	29.8	30.2	29.5	30.5	31.1	33.0	33.7

마. 총자산

○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 증가율은 수입보험료 성장 둔화와 투자 여건 악화로 FY2008 둔화된 후 FY2009 소폭 회복되어 FY2009 총자산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430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은 전년보다 8.1% 증가한 350조 9천억원, 손해보험은 전년보다 10.0% 증가한 79조 8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임.

<표 IV-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생명보험	187.4 (14.1)	211.6 (12.9)	239.4 (13.1)	273.1 (14.1)	305.4 (11.8)	324.6 (6.3)	350.9 (8.1)
손해보험	38.8 (9.8)	43.4 (12.0)	49.3 (13.6)	57.0 (15.6)	66.0 (15.9)	72.5 (9.8)	79.8 (10.0)
전 체	226.2 (13.3)	255.0 (12.7)	288.7 (13.2)	330.1 (14.4)	371.4 (12.5)	397.1 (6.9)	430.7 (8.5)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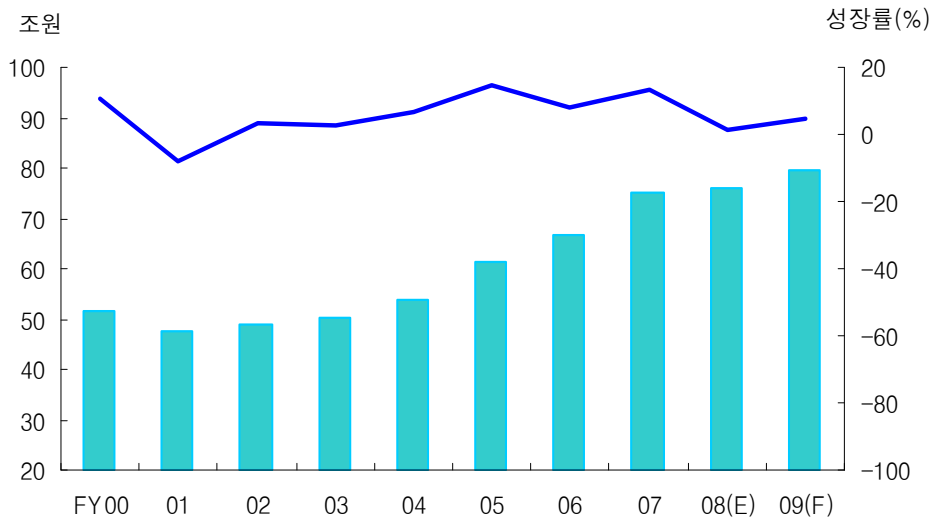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전망

1) 종목 전체 전망

- FY2009 생명보험산업은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FY2008에 비해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경제성장률이 2008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3.1%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초회보험료는 저성장이 예상되며 해약이 증가할 경우 계속보험료의 성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구조가 변액보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앞으로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 FY2008은 미국에서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연초 1,800선을 기록하던 주가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1,000p대에서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은 초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IV-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생명보험산업 수익성은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모두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FY2009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보험료의 저성장과 해약환급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영업이익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영업이익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기타수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액보험 수입수수료의 감소도 예상되기 때문에 생명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어 FY2008, FY2009 각각 6.3%, 8.1%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FY2008 1/4분기 자산 증가율은 1.3%로 전년동기 3.5%에 비해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2008년 8월 현재 생명보험 총자산은 310조 3천억원으로 6월에 비해 0.3% 성장에 그쳤고, 이는 단기적인 자산운용 상의 충격 때문으로 풀이됨.

<표 IV-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1	377,799	-5.2	95,844	-18.7	473,643	-8.3
FY2002	415,493	10	75,175	-21.6	490,668	3.6
FY2003	447,161	7.6	56,764	-24.5	503,925	2.7
FY2004	480,140	7.4	57,366	1.1	537,506	6.7
FY2005	547,521	14	67,201	17.1	614,722	14.4
FY2006	598,999	9.4	65,550	-2.5	664,549	8.1
FY2007	679,058	13.4	71,898	9.7	750,956	13.0
FY2008(E)	689,178	1.5	69,550	-3.3	758,727	1.0
FY2009(F)	725,541	5.3	69,773	0.3	795,314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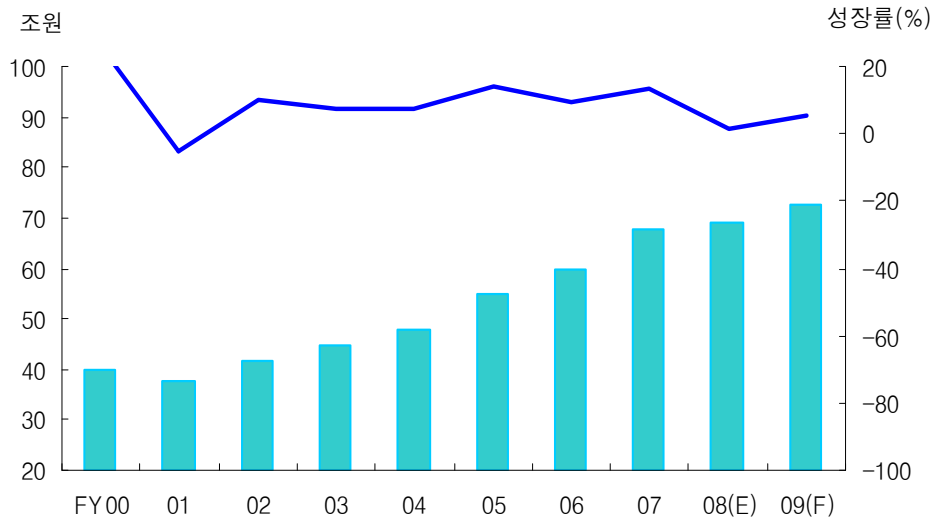
2) 보험종목별 전망

가) 개인보험

○ FY2009 개인보험은 사망보험의 저성장 기조 속에 생존,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1.5%의 저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FY2008에 비해 소폭 증가한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은 고성장을 지속하던 개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8 1/4분기를 시작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08년 7~8월 변액유니버설, 변액연금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0%이상 감소함.

<그림 IV-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표 IV-7>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1	74,955	-31	174,334	39	128,510	-22	377,799	-5.2
FY2002	91,424	22	213,677	22.6	110,392	-14.1	415,493	10
FY2003	120,375	31.7	231,844	8.5	94,942	-14	447,161	7.6
FY2004	131,368	9.1	262,971	13.4	85,801	-9.6	480,140	7.4
FY2005	159,305	21.3	278,492	5.9	109,725	27.9	547,521	14
FY2006	180,587	13.4	294,199	5.6	124,213	13.2	598,999	9.4
FY2007	223,900	24.0	306,813	4.3	148,345	19.4	679,058	13.4
FY2008(E)	225,691	0.8	309,207	0.8	154,279	4.0	689,178	1.5
FY2009(F)	248,938	10.3	309,673	0.2	166,930	8.2	725,541	5.3

주 : FY2002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1) 생존보험

- FY2009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8 나타난 일시납 중심의 신규가입 감소세가 진정되면서 계속보험료에 의한 성장세가 회복되어 전년대비 10.3% 성장한 24조 9천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경기악화로 인한 보험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2009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계정 연금의 매력은 반감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계정 연금보다는 변액연금 가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FY2008 생존보험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변액연금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크게 둔화되면서 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FY2007 변액연금은 60%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4~8월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초회보험료 비중이 37%에 달해 일시납 보험 위축에 따른 영향이 다른 변액보험 상품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사망보험

- FY2009에도 보험수요 변화에 따른 사망보험의 저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추가적인 수요 감소가 발생하면서 사망보험은 0.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수요가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이동하면서 사망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FY06 -12.1%, FY07 -25.9%,

2008년 4~8월 -24.2%), 최근 경제환경 악화로 사망보험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계속보험료 비중은 2008년 8월말 현재 98.0%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FY2008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0.8% 성장한 30조 9,2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종목별로 살펴보면 유지율 개선의 한계로 종신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질병 및 기타보험은 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 강화로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2008년 4~8월 종신보험, 질병 및 기타보험 성장률은 각각 5.0%, -1.6%를 기록함.

(3) 생사혼합보험

○ FY2009 일반계정 생사혼합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2% 성장한 16조 6,9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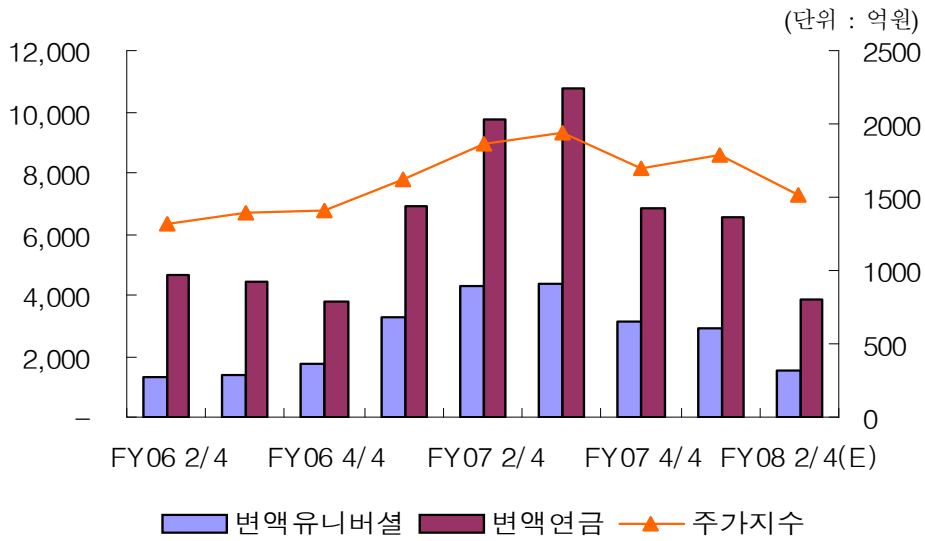
- 일반계정 생사혼합보험은 타금융상품과의 경쟁력 상실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성장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월납 중심의 계속보험료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FY2008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FY2007 40%대의 고성

장으로 생사혼합보험 성장을 이끌었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2007년 4~8월 변액유니버설보험 성장률은 19.3%로 나타났으나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37.8%를 기록하는 등 신규가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IV-5> 생사혼합보험 성장률 추이



나) 단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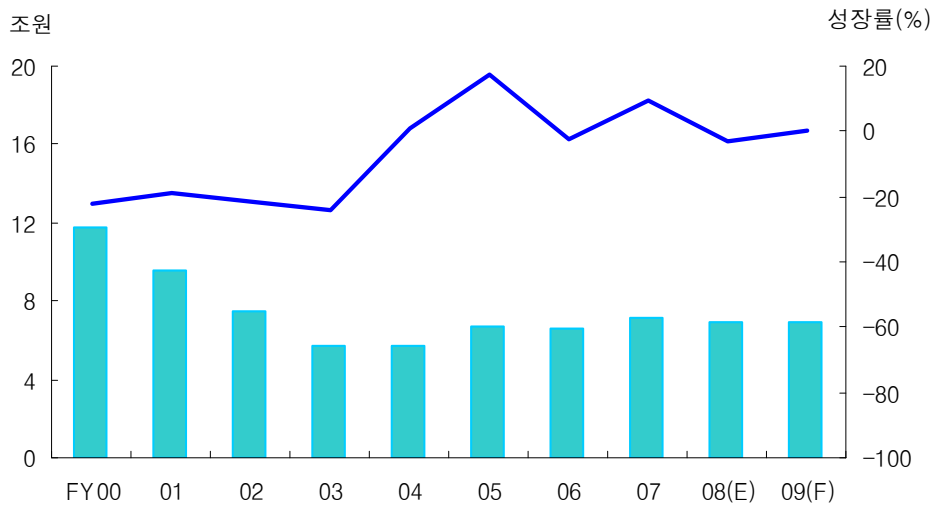
- FY2009 단체보험시장은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유보 손비인정비율이 30%로 축소되는 등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활성화 조치가 계속될 예정이나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가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카드대란 당시에도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어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체보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도율 증가에 따른 해약 증가도 우려됨.

○ FY2008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3.3%가 감소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추정됨.

-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던 퇴직연금이 FY2008 상반기에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의 해약도 늘고 있는 추세임.
-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단체보험도 2008년 4~8월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FY2007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악화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특별한 성장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움.

<그림 IV-6>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나. 지급보험금 전망

- FY2009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은 경기악화에 따른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전반의 해약환급금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2.9% 증가한 52조 5,507 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FY2008 총지급보험금은 해약률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하겠으나 단기저축성상품의 만기도래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한 46조 5,526 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IV-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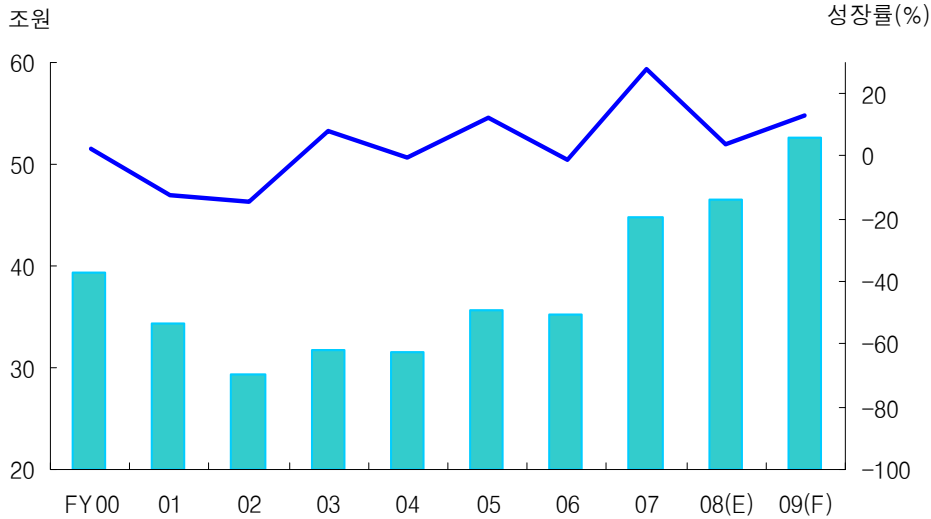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1	226,683	0.9	116,231	-30.8	342,914	-12.6
FY2002	212,197	-6.6	81,983	-29.5	294,180	-14.4
FY2003	255,554	20.4	61,840	-24.6	317,394	7.9
FY2004	267,067	4.5	49,159	-20.5	316,226	-0.4
FY2005	294,012	10.1	61,803	25.7	355,815	12.5
FY2006	288,734	-1.8	62,707	1.5	351,441	-1.2
FY2007	390,084	35.1	58,683	-6.4	448,766	27.7
FY2008(E)	398,558	2.2	66,968	14.1	465,526	3.7
FY2009(F)	447,269	12.2	78,238	16.8	525,507	12.9

- FY2009 경기악화에 따른 해약이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총지급보험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44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사망보험의 경우 경기악화로 인한 중복계약 해지 등의 우려가 있어

FY2000 이후 지속된 지급보험금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생사혼합보험은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저축성상품이 감소하고 있어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중심으로 한 해약 증가로 인해 그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 생존보험은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증가한 연금 가입자들의 생존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액연금 해약환급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보험금은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림 IV-7>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 FY2008 개인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기저축성상품의 만기도래 감소 효과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해약환급금 증가가 상쇄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4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FY2009 단체보험 총지급보험금은 경기악화에 의한 부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FY2008 대비 16.8% 증

가한 7조 8천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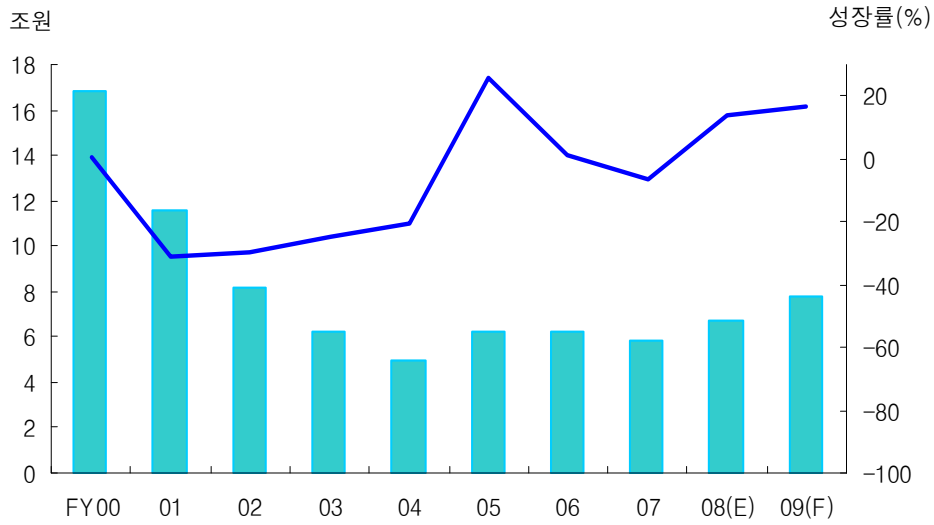
<표 IV-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1	64,238	-10.3	46,263	28.4	116,182	-0.6	226,683	0.9
FY2002	52,623	-18.9	55,419	19.8	104,155	-10.4	212,197	-6.6
FY2003	60,712	15.4	74,666	34.7	120,177	15.4	255,554	20.4
FY2004	73,135	20.5	91,553	22.6	102,379	-14.8	267,067	4.5
FY2005	83,350	14	99,617	8.8	111,045	8.5	294,012	10.1
FY2006	94,006	12.8	112,705	13.1	82,023	-26.1	288,734	-1.8
FY2007	133,910	42.4	124,857	10.8	131,317	60.1	390,084	35.1
FY2008(E)	154,482	15.4	137,670	10.3	106,406	-19.0	398,558	2.2
FY2009(F)	199,297	29.0	148,153	7.6	99,818	-6.2	447,269	12.2

- FY2008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의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총지급보험금은 FY2007 대비 14.1% 증가한 6조 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은 3배이상 급증한 바 있으므로 최근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전이되는지에 따라 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의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FY2009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입보험료가 한자리수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예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한 6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8>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FY2008에는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 모두 저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여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61.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표 IV-10>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지급률	63.0	58.8	57.9	52.9	59.8	61.4	66.1

3. 손해보험

가. 종목 전체 전망

1)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 FY2009 손해보험 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 유지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년대비 7.9% 성장한 40조 3,705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수익성은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은 독립법인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전문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보장 수요의 증대로 통합형보험과 질병 및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며,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자동차보험은 경기침체로 인한 운행거리 단축으로 사고율이 낮아지고 온라인 자보시장의 급성장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보험료 인하 압력이 계속될 것이며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도 정체되어 저성장 기조로 전환할 전망이다.
- FY200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10.1% 성장한 37조 4,0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의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유지되고 질병 및 상해보험의 신계약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4.0%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및 차량 고급화 추세와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율 둔화에 따라 3.3%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반손해보험은 보증보험의 성장세 회복과 특종보험의 성장세 지속으로 8.3%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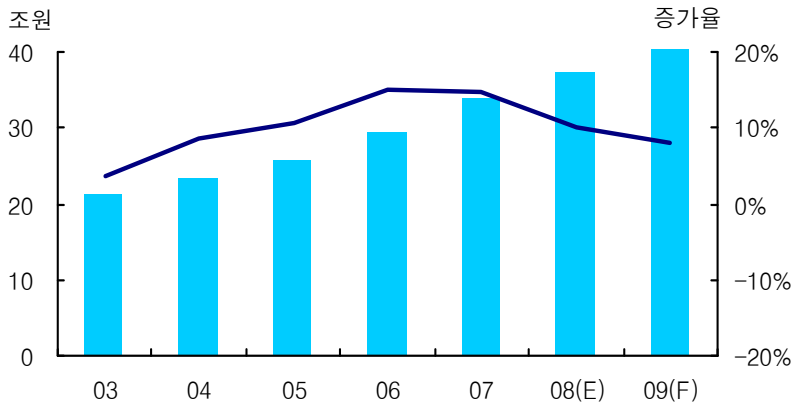
<표 IV-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보전체	213,783	232,189	257,235	295,829	339,820	374,005	403,705
	3.7	8.6	10.8	15.0	14.9	10.1	7.9
보증보험 제외	204,364	223,171	247,168	284,402	329,880	362,614	390,867
	3.9	9.2	10.8	15.1	16.0	9.9	7.8

주 : 1) 해외원보험과 퇴직보험, 부수사업 실적 포함임.
 2) 하단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림 IV-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2) 보험종목별 점유율 전망

- 보험종목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포

합)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FY2009 장기손해보험 점유율은 58.0%, 자동차보험은 28.2%, 일반손해보험은 13.9%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IV-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일 반	17.1	16.5	16.4	15.8	14.1	13.9	13.9
- 화 재	1.5	1.3	1.3	1.1	0.9	0.8	0.7
- 해 상	2.5	2.2	2.1	2.1	1.9	1.8	1.8
- 특 종	8.8	9.1	9.1	8.7	8.3	8.2	8.2
- 보 증	4.4	3.9	3.9	3.9	2.9	3.0	3.2
자동차	37.2	36.7	34.2	32.6	31.8	29.9	28.2
장 기	45.7	46.8	49.5	51.6	54.1	56.3	5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일반에는 해외원보험과 부수사업이, 장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이 포함됨.

나. 보험종목별 전망

1) 화재보험

- 화재보험은 요율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가 입대상물건의 확대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감소세가 점차 진정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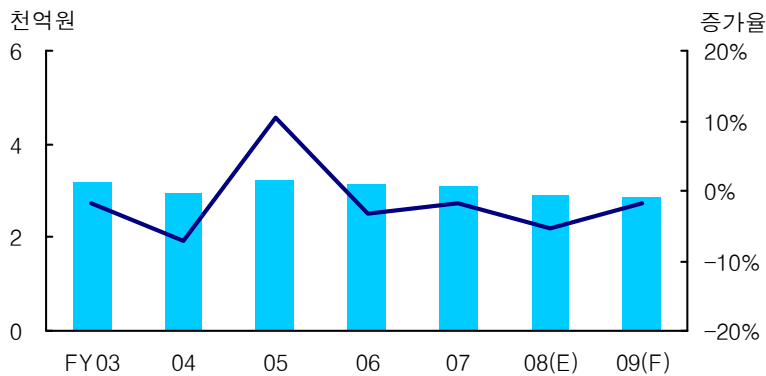
- FY2009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2,860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8에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2,9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표 IV-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원수보험료	3,160	2,937	3,242	3,132	3,075	2,912	2,860
증가율	-1.8	-7.1	10.4	-3.4	-1.8	-5.3	-1.8

<그림 IV-10>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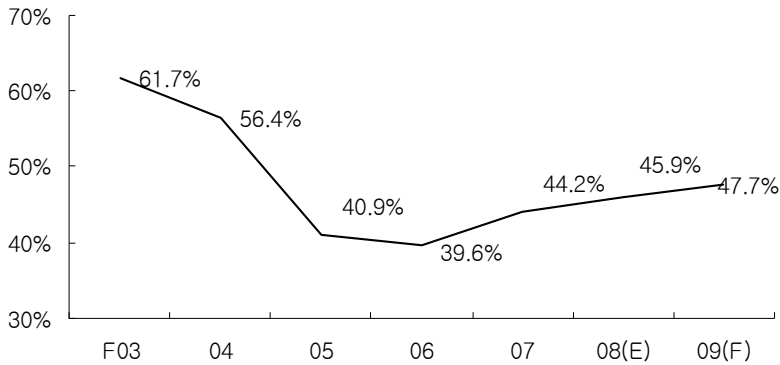
- FY2008 화재보험 손해율은 예년에 비해 풍수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성장부진과 실화자 배상책임의 범위 확대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09 손해율도 보험료 조정으로 다소 상승될 전망이다.

<표 IV-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61.7	56.4	40.9	39.6	44.2	45.9	47.7

<그림 IV-11>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2) 해상보험

○ 해상보험은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정체에 예상되므로 FY2009에는 예년 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FY08 5.7%, FY0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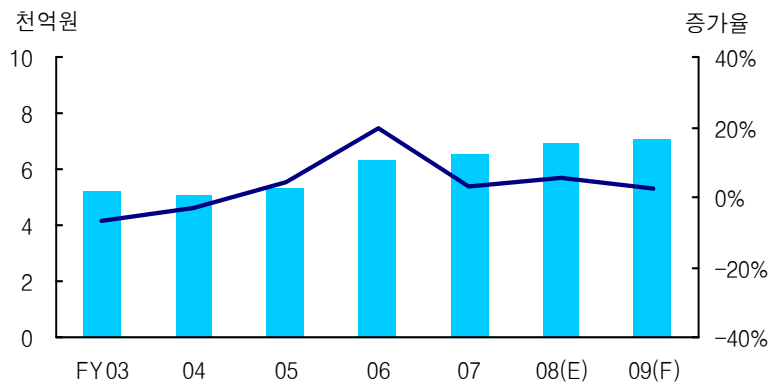
- FY2008 초반에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선박건조량 증가로 인해 16.1%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실물경기의 침체로 수출입 물동량이 정체되면서 전년대비 5.7%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FY2009에는 선박건조량의 증가와 LNG선 및 석유시추선 등 고가 선박의 증가로 건조보험을 중심으로 선박보험이 상승기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입 물동량이 정체되어 적하보험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2.6%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표 IV-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원수보험료	5,242	5,071	5,277	6,324	6,518	6,890	7,069
증가율	-6.5	-3.2	4.1	19.8	3.1	5.7	2.6

<그림 IV-12>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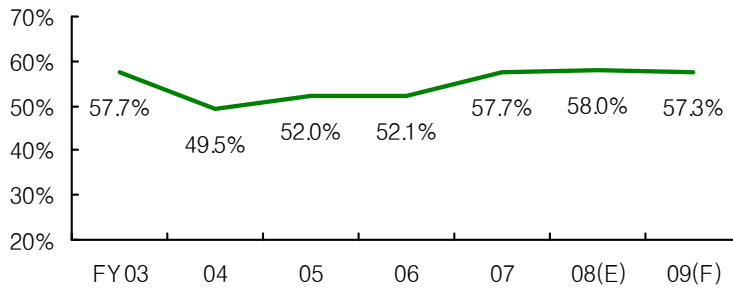
- 손해율은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낮아져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적하보험 및 선박보험의 요율 인하로 인해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FY2008 손해율도 전년도보다 악화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09에는 원수보험료 성장 회복에 따라 손해율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표 IV-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57.7	49.5	52.0	52.1	57.7	58.0	57.3

<그림 IV-13>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



3) 자동차보험

○ FY200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1조 3,672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08에는 3.3% 성장한 11조 1,66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FY2008 원수보험료는 최근 손해율 안정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 저렴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 차량 고급화 추세 약화, 자동차 신규판매 부진으로 인한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요인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FY2009에는 경기둔화로 인한 차량 증가율 정체, 낮은 손해율에 따른 효율인하 압력 지속 등이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온라인 상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시장점유율이 FY2008에는 1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09에는 동 점유율이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및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상승하여

온라인 채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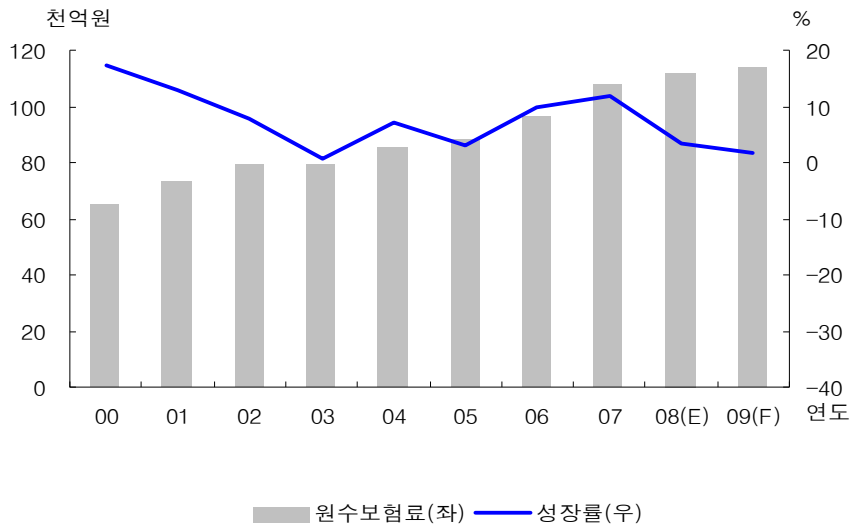
<표 IV-1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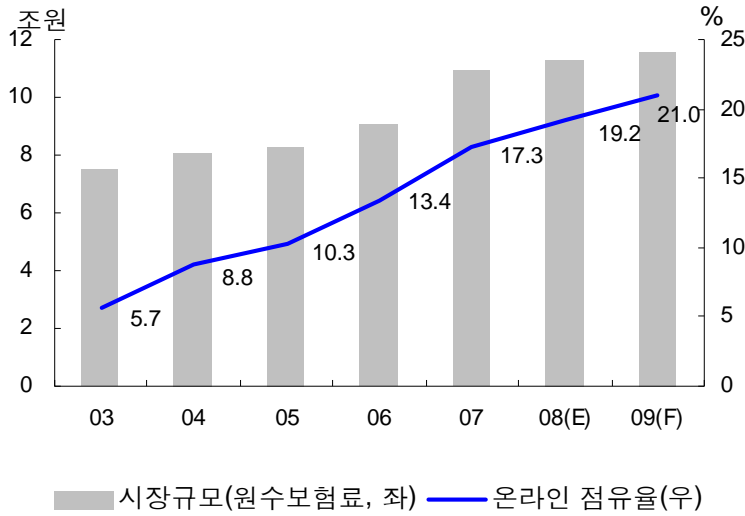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책임 보험	보험료	27,544	30,210	31,253	33,605	36,985	38,487	39,143
	증가율	-2.4	9.7	3.5	7.5	10.6	4.1	1.7
입의 보험	보험료	52,062	54,998	56,636	62,887	71,110	73,175	74,530
	증가율	2.2	5.6	3.0	11.0	13.1	2.9	1.9
합계	보험료	79,606	85,208	87,890	96,492	108,095	111,662	113,672
	증가율	0.6	7.0	3.1	9.8	12.0	3.3	1.8

주 :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은 2005년 2월 20일 의무화되었으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 할 수 있음.

<그림 IV-1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그림 IV-15> 자동차보험 시장규모 및 온라인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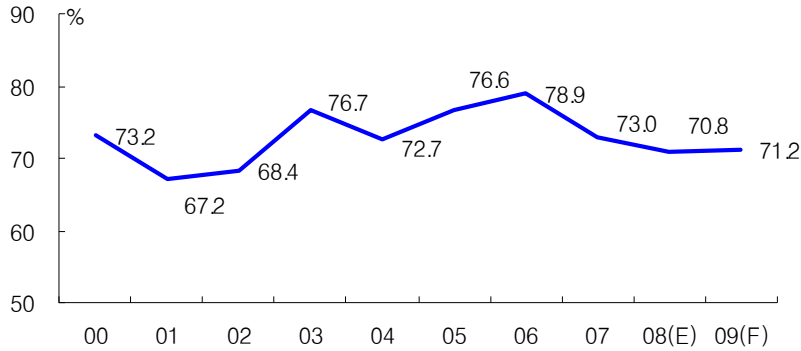
- FY2008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8%로 전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며, FY2009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7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8 손해율은 경기하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고유가에 따른 사고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9%p 하락할 것으로 기대됨.
- FY2009 손해율은 유가의 하향 안정화 추세 및 교통사범 특별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표 IV-18>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76.7	72.7	76.6	79.0	73.7	70.8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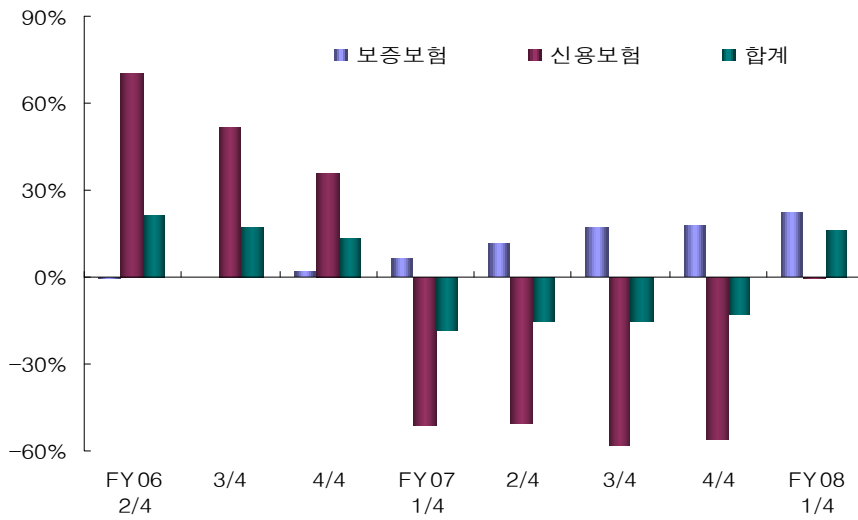
<그림 IV-16>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4) 보증보험

- 보증보험은 제 1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보증물량 자체는 늘어날 것이나 불량물건의 증대에 따른 심사 강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IV-17> 보증보험 종목별 성장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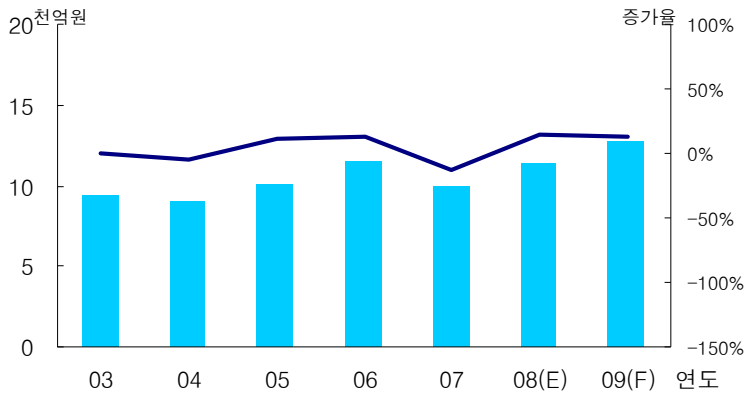
- FY2007 보증보험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따른 모기지신용보험(MCI)의 성장 감소 및 대형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약이탈에 따른 상업신용보험료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 그러나 FY2008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제1금융권의 신용경색, 주택담보대출규제(LTV, DTI) 완화로 보증물량이 증가하여 14.6% 성장을 전망함.
- FY2009는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와 불량물건 심사강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12.7% 성장이 예상됨.

<표 IV-19>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원수보험료	9,419	9,018	10,067	11,427	9,940	11,391	12,838
증가율	0.6	-4.3	11.6	13.5	-14.0	14.6	12.7

<그림 IV-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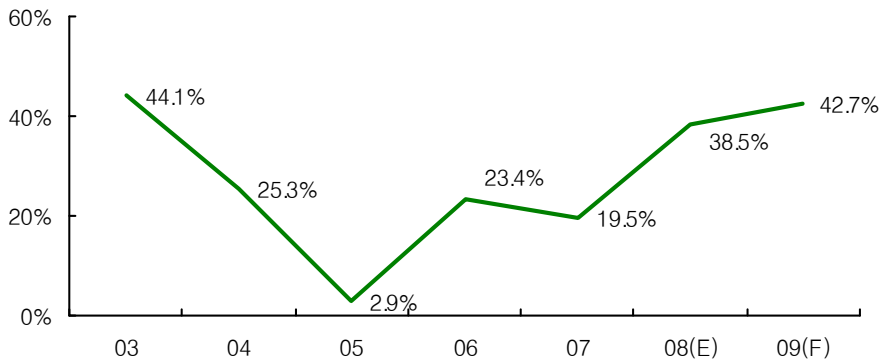
- FY2008 보증보험 손해율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부도 및 파산 증가로 일부 악화되겠으나, 원수보험료 성장과 불량물건의 인수심사 강화로 FY2009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20>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44.1	25.3	2.9	23.4	19.5	38.5	42.7

<그림 IV-19>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5) 특종보험

- 특종보험은 건설 부문의 경기침체로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의 부진이 예상되나, 기업복지 차원의 단체상해보험 시장 확대, 배상책임 범위 확대,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 전가로 인한 기타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해 8%대의 견조한 성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FY08 8.2%, FY09 8.4%).

- 기술보험의 경우 기계보험 및 전자기기보험의 효율인하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건설공사보험의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일부 회복되면 하락세는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소폭의 성장률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상해보험은 건강보장 수요의 증가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도난보험 등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를 담보하는 기타특종보험 영역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특종 보험의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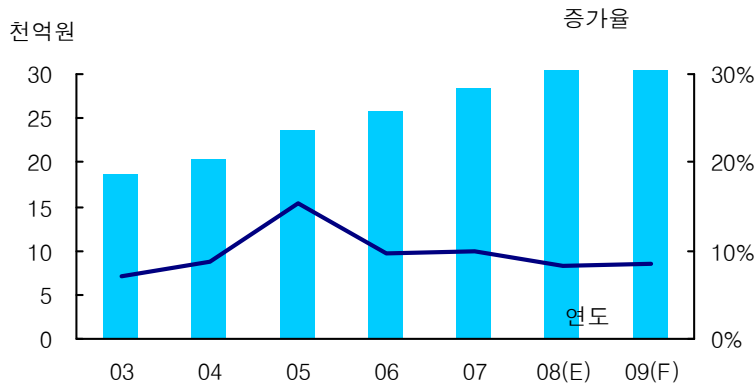
<표 IV-21>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원수보험료	18,741	20,369	23,513	25,810	28,371	30,697	33,276
증가율	7.2	12.7	11.0	9.8	9.9	8.2	8.4

주 : 해외원보험과 부수사업 실적이 포함됨.

<그림 IV-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8 특종보험 손해율은 63.4%로 예상되며, FY2009에는 66.9%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

- FY2008에는 단체상해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불량물건 발생률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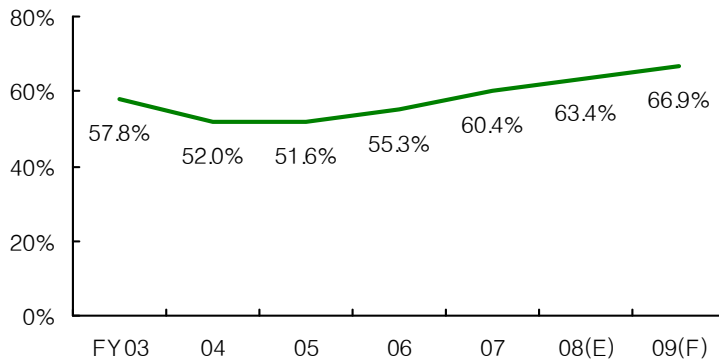
- FY2009은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어 손해율의 악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IV-22>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57.8	52.0	51.6	55.3	60.4	63.4	66.9

<그림 IV-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6) 장기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FY2007 19.5%, 2008년 4~8월 16.1% 성장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연초부터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FY2007 3.2%에서 2008년 4~8월 7.1%로 성장하였고, 해약률도 호전되어 향후 견조한 성장세 구축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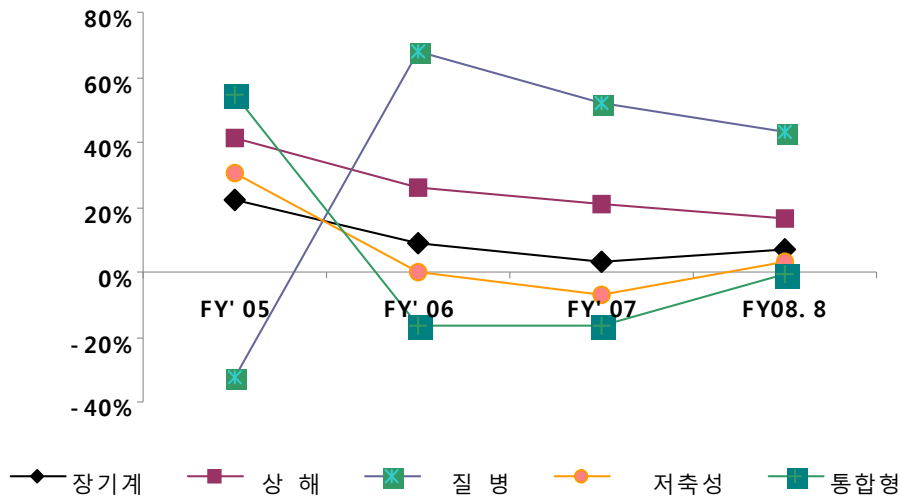
<표 IV-23>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구 분	FY 2007		FY2008. 4~8	
	원수보험료	초회보험료	원수보험료	초회보험료
통합형 보험	50.0%	-16.3%	29.4%	-0.8%
질 병 보 험	10.3%	52.3%	16.8%	42.9%
상 해 보 험	24.8%	20.7%	23.6%	16.8%
운전자 보험	2.9%	0.7%	0.8%	-27.3%
저축성 보험	21.9%	-7.1%	11.1%	3.3%
재 물 보 험	3.8%	13.6%	4.2%	5.1%
장기보험 계	19.5%	3.2%	16.1%	7.1%

- 통합형 보험은 FY2007 전년대비 -16.3%의 위축된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2008년 4~8월에는 -0.8%로 회복됨에 따라 예년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병 및 상해보험의 고성장세도 지속되

고 있으며, 특히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FY2007 52.3%, 2008년 4~8월 42.9%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의료실손 보험을 중심으로 한 질병보험이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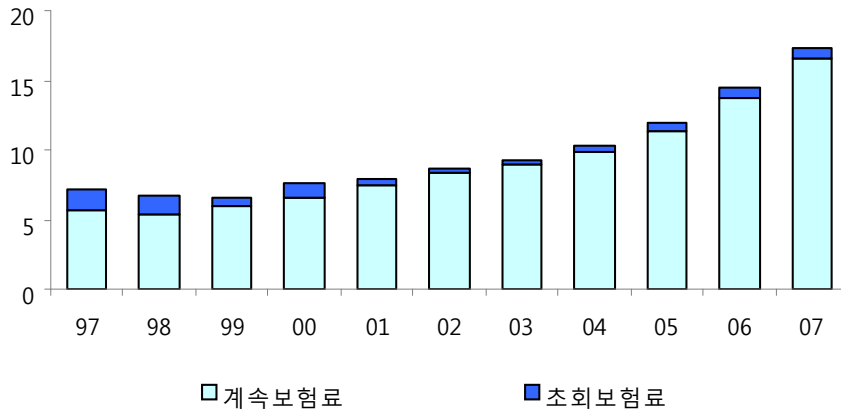
<그림 IV-22> 장기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



- 운전자보험이나 재물보험의 경우 신계약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투자형 금융상품의 쇠퇴와 방카슈랑스 채널의 성장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초회보험료 비중은 FY1997(21.8%)에 비해 FY2007(5.2%)이 현격히 낮아 단기적인 신계약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23> 장기보험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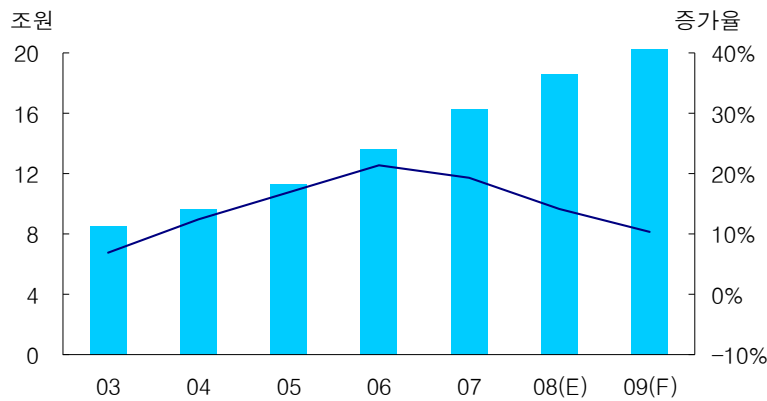
- FY2009에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국내 경기도 침체국면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신규 보험계약 수요가 약화되고,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FY08 14.0%, FY09 10.3%).
- FY2005 이후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성장과 함께 통합형보험이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FY2008부터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병 및 상해보험 중심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됨.
- 반면, 운전자 및 채물보험은 신계약 위축으로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성보험은 투자형 금융상품의 쇠퇴로 인한 반대급부로 일정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표 IV-24>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원수보험료	85,794	96,353	112,562	136,802	163,435	186,316	205,506
증가율	7.1	12.3	16.8	21.5	19.5	14.0	10.3

<그림 IV-24>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손해율은 최근 들어 고성장 및 수익성 관리로 인해 80%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음(FY07 80.7%, FY08.8 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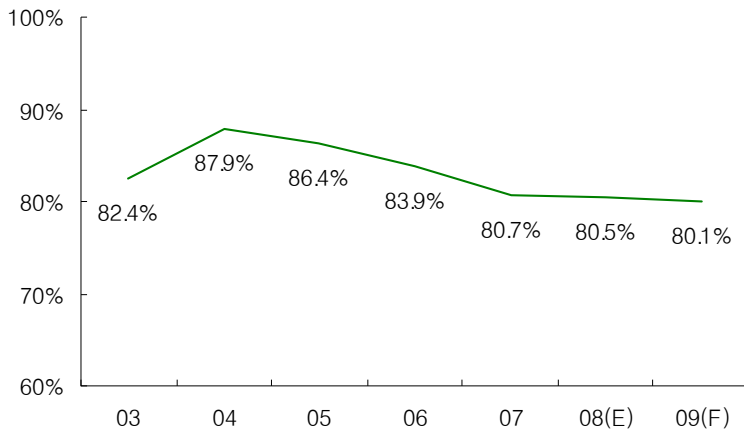
- 대형사를 중심으로 각 회사별 불량손해율 담보관련 경험위험률을 상향 산출하는 등 언더라이팅 강화와 함께 적극적 수익관리에 나서며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표 IV-25>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손해율	82.4	87.9	86.4	83.9	80.7	80.5	80.1

<그림 IV-25>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7)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퇴직연금)

○ FY2009 개인연금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5.0% 증가한 1조 5,480 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8에는 23.9% 증가한 12,384 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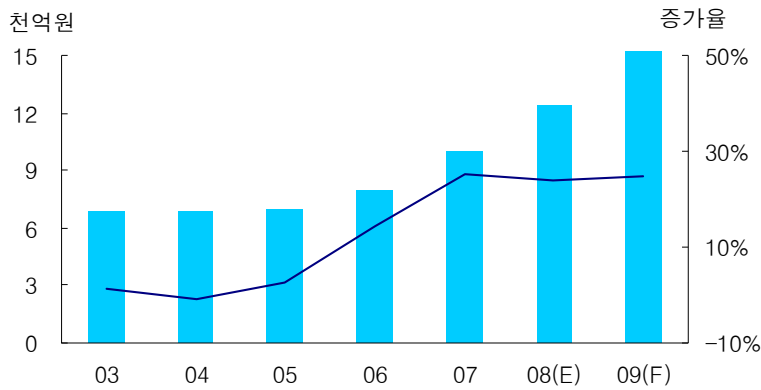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컨설팅 니즈 증대 등 노후 생활대비 상품에 대한 수요 지속과 함께 간접투자 시장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중심의 성향을 지닌 실버고객의 니즈를 흡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장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IV-26>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원수보험료	6,873	6,799	6,976	7,975	9,995	12,384	15,480
증가율	1.3	-1.1	2.6	14.3	25.3	23.9	25.0

<그림 IV-26>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9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1조 3,005억 원으로 전망되며, FY2008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1조 1,753억 원으로 추정됨.

-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과 퇴직연금가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퇴직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 2009년에도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유보 손비인정비율이 30%로 축소되는 등 퇴직연금 가입의 활성화 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나 경기악화의 영향

으로 기업들이 신규가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FY2008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IV-27>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퇴직 보험	원수보험료	4,949	5,622	7,707	6,542	8,258	5,781	4,046
	증가율	12.4	13.6	37.1	-15.0	26.2	-30.0	-30.0
퇴직 연금	원수보험료	-	-	-	1,325	2,133	5,972	8,959
	증가율	-	-	-	-	61.0	180.0	50.0
합계	원수보험료	4,949	5,622	7,707	7,868	10,391	11,753	13,005
	증가율	12.4	13.6	37.1	2.1	31.0	13.1	10.7

V. 보험산업 주요과제

1. 경영의 위기와 기회 요인

-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실물경제의 침체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도 보험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여건은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으로 자산운용과 변액보험의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실물경제의 침체 등으로 경제적 여건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적 시행과 보험업법의 개정 등에 따라 금융산업간 채널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고령화의 급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비중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장 수요의 증가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는 개인의 장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보험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1, 2차세대(1955~75년 출생)의 중장년기 진입은 보험수요의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향후 국내외 경제의 높은 침체 가능성과 보험제도의 변화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위기요인이 많을 것이나 기회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앞서서와 같이 판매영역에서는 경기불황, 채널간 경쟁심화, 소비자보

- 호 강화 등은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고령화의 진전, 교차판매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동시에 있음.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위협요인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기회요인이 상존함.
 - 사업영역에서는 업권간 및 업권내 경쟁심화로 영역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나,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함.
 - 상품개발에서는 신성장 상품의 부재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확인절차의 간소화, 사업비 후취제도, 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의 기회요인도 기대됨.

<그림 V-1> 보험회사 경영영역별 기회와 위기 요인



2. 기회요인을 극대화

가. 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의 성장 보안

- 중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수요 증대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영업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한 신규계약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약률 관리를 통한 계속보험료의 유지가 중요함.
 - 초기에 가입부담이 큰 일시납 형태의 보험보다는 월납, 장기보험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나. 회사 고유의 발전모형 구축

- 보험회사간 경영여건의 차별화도 심화되고 있어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사업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회사간 상품구성, 채널구성 등의 차이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 회사 고유의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복기에 대비한 성장모형의 개발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 고유모델의 개발 및 적용시 금융투자관련 업무에서는 적합한 업무의 선정과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됨.
 - 우선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유동화 업무, 파생상품 등에서 적합한 업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각 업무에서 자체적인 자신운동능력, 지점망 또는 전속설계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수행 또는 제휴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급결제관련 업무도 수행 가능한 업무의 종류와 회사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다양한 참여방식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즉, 개별결제망의 가입 또는 인터넷 뱅크 설립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3.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

가. 규제강화를 규제합리화로 활용

- 판매책임에 대한 보험회사와 대형 판매채널간에 존재하는 규제 차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비전속채널인 금융기관 대리점,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대형 판매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제의 합리화가 요구됨.
- 적합성 원칙 도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이나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고객이 'Know-Your-Customer-Rule'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기로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된 상황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영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야함.

- 세계적인 금융위기,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고려하여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유연성 있는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기능을 하는 유사보험상품과 보험상품간의 규제 차익을 축소해야할 필요가 있음.
 - CDS를 포함하는 신용파생상품, 날씨파생상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등 유사보험상품이 보험상품에 비해 규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나. 신뢰성 제고와 서비스의 차별화

- 판매채널간 경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의 축소를 통한 신뢰성 높은 전속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교육 강화와 함께 판매자의 윤리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모범규준의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차별화 전략도 요구됨.
 - 자문 서비스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전속채널의 경우 소속회사의 다양한 종합금융서비스 기능 확보도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

다. 안정성 높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준수 등 이미지 제고도 필요함.
 -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임.
 - 경영의 투명성, 녹색성장 등 환경 친화적 활동 및 도덕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의 도입도 보험회사의 안정성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부록〉 금융위기 발생일지 및 보험산업 주요 전망치 요약

1. 금융위기 발생일지(Financial Times, 10/28)

일자	금융기관	조치	결과
'07.9.14	Northern Rock (영국계 대부업체)	영란은행으로부터 \$42억 수혈	경영진교체
'07.10.2	UBS (스위스계 은행)	스위스 정부로 \$53억 투입 \$600억의 bad bank 기금마련	구제금융
'07.11.26	HSBC (영국계 은행)	\$450억 구제금융신청	영업중/ '08.6 현재 자산규모: \$25,470억
'08.2.19	Société Generale (프랑스계 은행)	70억 거래손실로 55억 규모 주식발행	영업중/ '08.6 현재 자산규모: \$14,520억
'08.2.19	Credit Suisse (스위스계 은행)	\$28억5천만 손실 Sovereign wealth fund 등의 수혈 거절	영업중/ '08.6 현재 자산규모: \$10,820억
'08.3.14	Bear Stearns	JPMorgan Chase \$220억으로 인수	파산
'08.3.17	JPMorgan Chase	Bear Stearns 주식 1주당 \$2에 인수 '08.9에 Washington Mutual \$190억에 인수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20,360억
'08.4.21	The Royal Bank of Scotland	ABN Amro 인수로 인해 자본보강을 위해 \$120억 주식발행	영업중/ '08.6 현재 자산규모: \$32,980억
'08.6.6	Lehman Brothers	\$60억 자본증액 계획 발표 '08.9.14 파산보호신청 최대대출기관인 일본은행은 자국내 Lehman Brothers의 자산동결 신청	파산/ '08.10 현재 13,390명 실업
'08.7.31	Deutsche Bank	유동성 문제 발생 50억 적자 발표	영업중/ '07.12 현재 자산규모: \$27,600억
'08.8.31	Dresdner Bank	Commerzbank, Allianz로부터 90억에 인수	경영진 교체
'08.8.31	Commerzbank	Dresdner Bank 인수로 Deutsche Bank와 라이벌 구도 형성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8400억
'08.9.14	Merrill Lynch	Bank of America, \$500억에 인수	경영진 교체 5,220명 실업
'08.9.14	Bank of America	Lehman Brothers 인수에 실패한 후 Merrill Lynch 인수 성공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17,170억
'08.9.16	AIG	미국 정부 850억 달러 자금투입 지분 79.9% 인수	구제금융
'08.9.16	HBOs (영국계 대부업체)	자금 확보 실패에 대한 우려로 주식 폭락 Lloyds TSB, \$210억에 인수	경영진 교체

일자	금융기관	조치	결과
'08.9.16	Barclays (영국계 은행)	Lehman Brothers의 북미투자은행, 자본시장영업부분 인수합의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23,610억
'08.9.17	Lloyds TSB	\$210억에 HBOS 인수 10월 인수 후유증으로 경영권포기 조건으로 \$97억 구제금융 지원받음	확장
'08.9.22	Morgan Stanley	은행지주사로 변경	업종전환/ '08.5 현재 자산규모: \$10,310억
'08.9.22	Goldman Sachs	상업은행으로 변경 제휴은행으로부터 \$500억 요청	업종전환/ '08.8 현재 자산규모: \$10,820억
'08.9.22	Nomura (일본계 은행)	Lehman Brothers의 아시아지부 인수 유럽 증권/기업금융부분 인수 독점적 진행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2,570억
'08.9.22	MUFG(Mitsubishi UFG Group)	\$90억에 Morgan Stanley 주식 10~20%인수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19,220억
'08.9.25	Washington Mutual	주식폭락 및 \$167억 예금인출 미국은행 최대 파산사태 기록	파산 불량대출: \$190억
'08.9.28	Fortis(벨기에,룩셈부 르크,네덜란드 계 은행)	3개국 정부 112억 투입 유럽최대 구제금융 지원 금융기관 기록 BNP Paribas, ING와의 인수합병 실패	구제금융
'08.9.29	Bradford & Bingley (영국 대부업체)	예금인출로 국유화 투입금액: \$325억	경영진 교체
'08.9.29	Wachovia (미국6위 대부업체)	Citigroup, \$22억에 인수 조건: FDIC, 손실 부담 및 \$120억 규모 주식 인수	파산
'08.9.29	Glitnir (아이슬란드계 은행)	단기 유동성 문제 발생, 국유화 정부, \$8억6천4백만 수혈	구제금융
'08.9.29	Citigroup	Wachovia 인수로 미국 내 최대 소매금융 은행으로 자리매김	확장
'08.9.29	Santander (스페인계 은행)	Bradford & Bingley 대부업체의 예금부분 인수로 영국 내 최고은행 대열에 합류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12,500억
'08.9.29	Hypo Real Estate (독일계 유럽최대 대부업체)	독일 민영은행, Bundesbank, ECB로부터 유동성자금 350억 수혈 10월5일 정부 500억 투입	구제금융
'08.9.30	Dexia(프랑스/벨기에 계 은행)	주가총액 30% 손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64억 투입	구제금융
'08.10.3	Wells Fargo	Wachovia 인수에 \$151억 및 모든 주식소유 제시안 거절	영업중

일자	금융기관	조치	결과
'08.10.6	BNP Paribas (프랑스계 은행)	Fortis를 벨기에정부로부터 인수 예금기준 유로지역 최대은행으로 부각	확장/ '08.6 현재 자산규모: \$24,790억
'08.10.7	Landsbanki (아이슬란드계 은행)	아이슬란드 정부 인수	경영진 교체
'08.10.8	Kaupthing(아이슬란드 대부업체)	영국지점의 행정조치 이후 아이슬란드 정부 인수	경영진 교체
'08.10.19	ING(네덜란드계 은행보험그룹)	네덜란드 정부, 100억 투입 core capital 보강	영업증
'08.10.28	Aegon(네덜란드계 보험그룹)	네덜란드 정부, 30억 투입 core capital 보강	영업증

2. 금융위기에 대한 국가별 정책대응(Financial Times, 10/28)

2-1. 유동성 공급 및 대출 보증

미국	향후 3년간 은행의 모든 우선순위 부채보증
유로	주말 경매방식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일본	10월8일 200억 달러 추가 유동성 공급
독일	은행지급보증에 4,000억 유로 투입
영국	2,500억 유로 한도의 은행 신규 단기·중기 대출 보증
프랑스	은행지급 보증에 3200억 유로 투입
네덜란드	은행간 대출 보증에 2000억 유로 투입
스페인	2008년 은행지급 보증에 1000억 유로 투입/ 2009년 추가 투입 계획
이탈리아	부실 자산 해소를 위한 400억 유로 국채 발행
아이슬란드	러시아로부터 40억 유로 유동성 요청
중국	지급준비율 0.5% 인하/ 이자소득세 5% 면제

2-2. 금리 인하

미국	10월8일 기준금리 2.0%→1.5% 10월31일 기준금리 1.5%→1.0%
유로	10월8일 기준금리 4.25%→3.75% 11월중 기준금리 3.75%→3.25% 예정
영국	10월8일 기준금리 5.0%→4.5%
중국	10월8일 대출금리 7.2%→6.93%

2-3. 은행 예금금리 보증

미국	2009년 말까지 예금주당 10만 달러 예금보장→25만 달러 예금보장 이자부과 없는 예금은 무제한 보증
유로	1년 동안 모든 회원국 5만 유로 예금 보증 일부 국가는 10만 유로 예금 보장
독일	모든 민간 독일 은행 계좌 무제한 보증
영국	예금보증을 3만5천 파운드→5만 파운드로 확대
이탈리아	10만3천유로까지 예금 보장
호주	3년간 6000억 호주달러→7000억 호주달러 예금보장으로 확대

2-4. 은행 자본 강화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중 2,500억 달러까지 은행의 우선주 매입 허용 매입액의 1/2은 9개 대형은행에 투입, 1/2은 소형 및 저축은행에 투입
미국	Fannie Mae and Freddie Mac: 2000억 달러(구제금융 결정 이전 사항) Wachovia: 120억 달러 Citigroup: 250억 달러 JPMorgan Chase: 250억 달러 Bank of America: 200억 달러 Merrill Lynch: 50억 달러 Wells Fargo: 250억 달러 Goldman Sachs: 100억 달러 Morgan Stanley: 100억 달러 Bank of New York Mellon: 30억 달러 상한 Sate Street: 30억 달러 상한
일본	자사주 매입 제한 해제 정부소유 주식 매매 일시 정지
독일	은행 자본 강화를 위한 추가 1,000억 유로 제공

	Hypo Real Estate에 500억 유로 투입
영국	Tier One 자본비율 증가를 위해 250억 파운드 제공 RBS, HBOS, Lloyds TSB에 390억 파운드 투입 및 부분적 국유화
프랑스	400억 유로 제공 대행 기관 설립 Dexia 은행에 64억 유로 투입 Crédit Agricole에 30억 유로 투입 BNP Paribas에 25억5천 만 유로 투입 Société Générale에 17억 유로 투입
네덜란드	200억 유로 상한 책정 100억 유로 ING 은행·보험그룹 투입 30억 유로 Aegon 보험그룹 투입
벨기에	Fortis Bank에 112억 유로 투입
스페인	은행주 구매 허용 승인
이탈리아	투표권 없는 은행주 구매 방안 통과
스위스	UBS에 39억 유로 투입
아이슬란드	3개 대형 은행 국유화 Glitnir Bank에 6억 유로 투입 Landsbanki와 Kaupthing 은행의 우선주 매입

2-5. 은행 자산 구매

미국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중 1,000억 달러를 은행 부실 자산 인수에 투입
스위스	스위스은행에 의한 UBS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부실 증권 인수
호주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동산 증권 매수에 80억 호주달러 책정

2-6. 공매도 금지

미국	10월8일 해제 조건부 9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공매도 금지
일본	2002년 이후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독일	연말해제 조건부 11개 금융주식에 대한 naked 공매도 금지
영국	2009년 1월16일 해제 조건부 34개 금융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프랑스	9월22일부터 3개월 후 해제 조건부 은행과 보험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네덜란드	3개월이후 해제 조건부 8개 금융기관 naked 공매도 금지
중국	공매도 허용 불가

3.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7	FY2008(E)	FY2009(F)
수입보험료(조원,성장률)			
- 생명보험	75.1(13.0%)	75.9(1.0%)	79.5(4.8%)
- 손해보험	34.0(14.9%)	37.4(10.2%)	40.4(7.9%)
- 전 체	109.1(13.6%)	113.3(3.8%)	119.9(5.8%)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8.3	7.8	7.8
- 손해보험	3.8	3.9	3.9
- 전 체	12.1	11.7	11.7
1인당보험료(천원)			
- 생명보험	1,550	1,561	1,632
- 손해보험	701	769	828
- 전 체	2,231	2,330	2,460
생손보 구성비(%)	68.9 : 31.1	67.0 : 33.0	66.3 : 33.7
총자산(조원)			
- 생명보험	305.4(11.8%)	324.6(6.3%)	350.9(8.1%)
- 손해보험	66.0(15.9%)	72.5(9.8%)	79.8(10.0%)
- 전 체	371.4(12.5%)	397.1(6.9%)	430.7(8.5%)

주 :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괄호안 숫자는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

3)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4.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6		FY2007		FY2008(E)		FY2009(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생존	180,587	13.4	223,900	24.0	225,691	0.8	248,938	10.3	
	사망	294,199	5.6	306,813	4.3	309,207	0.8	309,673	0.2	
	생사	124,213	13.2	148,345	19.4	154,279	4.0	166,930	8.2	
	소계	598,999	9.4	679,058	13.4	689,178	1.5	725,541	5.3	
	단체	65,550	-2.5	71,898	9.7	69,550	-3.3	69,773	0.3	
	합계	664,549	8.1	750,956	13.0	758,727	1.0	795,314	4.8	
손해보험	화재	3,132	-3.4	3,075	-1.8	2,912	-5.3	2,860	-1.8	
	해상	6,324	19.8	6,518	3.1	6,890	5.7	7,069	2.6	
	- 선박	2,544	17.4	2,805	10.3	3,071	9.5	3,183	3.6	
	- 적하	2,166	0.1	2,345	8.3	2,587	10.3	2,647	2.3	
	- 항공	899	52.5	631	-29.8	572	-9.4	579	1.3	
	자동차	96,492	9.8	108,095	12.0	111,662	3.3	113,672	1.8	
	- 책임	33,605	7.5	38,155	13.5	39,247	2.9	39,953	1.8	
	- 임의	62,887	11.0	69,940	11.2	72,415	3.5	73,719	1.8	
	보증	11,427	13.5	9,940	-14.0	11,391	14.6	12,838	12.7	
	특종	25,810	9.8	28,371	9.9	30,697	8.2	33,276	8.4	
	- 기술	2,584	-1.1	2,999	5.1	2,907	-3.1	2,802	-3.6	
	- 책임	4,775	-5.3	4,863	1.8	5,308	9.2	5,738	8.1	
	- 상해	6,579	43.0	7,827	19.0	8,659	10.6	9,673	11.7	
	- 종합	9,629	3.0	9,694	0.7	9,948	2.6	9,990	0.4	
	- 기타	1,012	4.1	1,223	20.9	1,403	14.7	1,602	14.2	
	장기	136,802	21.5	163,435	19.5	186,316	14.0	205,506	10.3	
	개인	7,975	14.3	9,995	25.3	12,384	23.9	15,480	25.0	
	퇴직	보험	6,542	-15.0	8,258	26.2	5,781	-30.0	4,046	-30.0
	연금	1,325	-	2,133	61.0	5,972	180.0	8,959	50.0	
	합계	295,829	15.0	339,820	14.9	374,005	10.1	403,705	7.9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5.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경제지표	CY2006	CY2007	CY2008(E)	CY2009(F)
실질GDP	5.1	5.0	4.1	3.1
(경상GDP)	4.6	6.3	7.5	6.0
민간소비	4.5	4.5	1.7	1.6
설비투자	7.8	7.6	2.3	2.1
건설투자	-0.1	1.2	-0.9	1.4
총수출	11.8	12.1	10.4	6.3
(재화수출)	(12.4)	(12.0)	(10.2)	(6.3)
총수입	11.3	11.9	8.2	5.9
(재화수입)	(11.2)	(10.9)	(9.6)	(6.8)
경상수지(US\$억)	54	60	-100	12
상품수지(US\$억)	279	294	78	89
(상품수출)	(14.8)	(14.2)	(20.8)	(4.3)
(상품수입)	(18.6)	(15.0)	(28.7)	(4.1)
소비자물가(연평균)	2.3	2.5	4.7	3.0
국고채(3년)(연평균)	4.8	5.2	5.2	4.1
원/달러(연평균)	955	929	1,066	1,106
(4/4분기 평균)	(Q4: 938)	(Q4: 921)	(Q4: 1,229)	(Q4: 1,068)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연구조사자료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조재현,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류건식,김석영,이상우,박정희,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장이규,이경희,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정책연구자료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CEO Report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내용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개발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 4415 팩스 : (02)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정책연구자료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ISBN 89-5710-070-7 94320

정가 10,000원